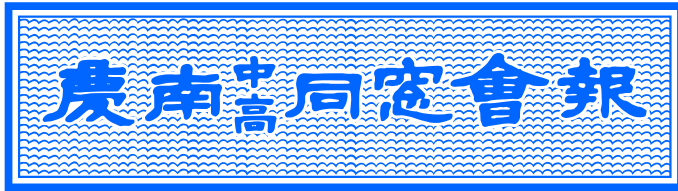


찬란한 옥과같이 갈리고 갈려 단단한 쇠와같이 닳고 닳려 영도에 날고뛰는 용마보다도 현해를 구비치는 고래보다도 우리는 지혜롭고 더욱 날래게 새로운 우리나라 기념탑으로 크나큰 이름내는 경남중고교



발행·편집인: 이 용 품
발행처: 경남중고등학교 본부동창회
부산광역시 중구 부평동 4가 52-3 골든OT 411호
편집 / 제작: 경남중고동창회보 편집실
Tel. (051)245-7551~3 / Fax. (051)245-7550

신묘 새해 ‘용마의 비상’을 꿈꾼다

이용흠 회장 “올해를 ‘모교중흥의 원년’으로” 박희태 국회의장 “명문의 영예와 위상 과시할 때”

신묘 새해 용마들의 꿈과 희망이 ‘모교중흥’과 ‘용마의 비상’에 모아지고 있다.

이용흠 본부동창회 회장은 신년사에서 “우리 동창회에 새 바람이 불고 있으며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기초는 세워졌다고 자부한다”며 “이러한 도약의 기초를 바탕으로 올해를 ‘용마의 비상’의 원년이 되도록 만들자”고 말했다.

박희태 동문(국회의장)도 신년사를 통해 “올해는 본부동창회와 재경동창회를 이끌 새로운 역군들이 등장한다”며 “‘모교중흥’이라는 일지된 결의를 집결하여 명문의 영예와 위상을 유감없이 과시해야 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창원지역동창회 김수용 회장(24회)은 신년사에서 “올해를 위한 준비를 하며 작은 일부터 함께 나누는, 보다 즐겁고 유익한 그리고 편안한 동창회로 거듭나는 원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남지역 윤형근 회장(29회)은 “정초에 일출로 유명한 여수 항일항에서 붉고 흰차게 떠오르는 해를 보았다. 우리 동문들의 올 한해를 보는 듯 했다”고 덕담했다.

울산지역동창회 박홍조 회장(22회)은 신년사를 통해 “새해에는 더 자주 만나고 동문 선후배간에 더욱 더 화합하는 한해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 <3면에 신년사>



3년만에 열린 '2010 용마의 밤'은 화합의 열기로 뜨겁게 달아올랐다.

재경동창회 신입회장에 임우근 동문 선임

제18대 재경동창회 회장에 임우근 동문(19회, 한성기업 대표)이 선임됐다.

그동안 재경동창회 수석부회장을 맡아온 임 동문은 작년 11월 25일 서울 역삼역 포에버리더스에서 열린 이사회 및 임원합동회의에서 재경동창회 신입회장으로 선임됐다.

임 선임 회장은 수락연설에서 “열심히 하고자 하는 열정을 갖고 있으며 또 열심히 하겠다”며 동문들의 협조를 요청했다.

한편 회장직에서 물러난 배재욱 전임 회장은 경발위 공동위원장으로 계속 활동하게 된다. * <7면에 임 선임회장 인터뷰>

<알림> 회보 구독료 인상 안내

급년 1월부터 회보구독료를 종전 년 2만원에서 년 3만원으로 올리게 됐습니다. 작년 말 부터 서울 경기지역 동문들에게도 회보를 개별발송하기 시작함으로써 전국적으로 동문들에게 회보를 일일이 우편배달해 드리는 ‘전면적인 회보개별발송체제’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회보발송비용이 종전에 비해 크게 늘어났고 증면 등에 따르는 각종 제작비 또한 늘어나 부득이 구독료를 인상하게 됐습니다. 동문 여러분의 넓은신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경남중고 본부동창회 배상

16면으로 증면 발행... 지면안내

- * “토끼의 지혜로 금년 한해도 잘 풀어 나갑시다” 신년사 - 3면
- * “이용흠군이 저렇게 앉아서서 애를 쓰는데...” 오영은 은사 - 5면
- * “동문들의 참여 끌어낼 방도 강구하겠다” 임우근 재경 신입회장 - 7면
- * ‘2010 용마의 밤’ 총연출 이윤택 동문 인터뷰 - 9면
- * ‘廁上에 쪼그리고 앉아’ 김성연의 人文산책 - 11면
- * ‘활기찬 동창회모습 보기 좋습니다’ 노기태 동문 인터뷰 - 12면
- * “인생의 데꾸보꾸” 겪으면서... 부부사주 전문가 정왕주 동문 - 13면
- * “문학에 눈뜨게 해 준 ‘인생의 스승’ ‘스핑크스’ 손동인선생님 / 김중하 동문 - 14면
- * ‘지도교사 없이... 경교미술반 시절’ 그 때 그 시절 이야기 / 반미태 동문 - 15면

‘2010 용마의 밤’ 전국서 9백여명 참석, 대성황

응원가 목 터지게 부르며 선후배 하나 돼 ‘모교중흥’과 ‘용마의 비상’ 다짐한 뜨거운 밤

‘모교 중흥’과 ‘용마의 비상’을 다짐하고 결의한 뜨거운 밤이었다. 오랜만에 교가와 응원가를 목 아프도록 부르면서 동문 선후배들의 마음이 하나로 뭉쳐진 자리였다.

지난해 12월10일 저녁 부산 서면 롯데호텔 크리스탈 볼룸에서 거행된 ‘2010 용마의 밤’은 전국에서 9백여명의 용마들이 참석, 대성황을 이루었다.

개회를 알리는 팽파레에 이어 무대 양쪽에 설치된 스크린에는 모교의 어제와 오늘이 상영되는 가운데 응원가 1, 2, 3 시리즈가 우렁차게 연주되자 곳곳에서 박수가 터져 나오는 등 장내는 순식간에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찼다.

이날 행사의 대회장인 박희태 동문(11회, 국회의장)은 위털루전쟁의 영웅 웰링턴 장군과 그가 다닌 영국의 이튼스쿨의 일화를 소개하며 “우리 모교 역시 인재를 보고였다”고 강조하고 당당한 모교의 상황에 대한 용마인들의 각성과 발상의 전환을 역설했다. 박 대회장은 ‘미치지 아니하면 이를 수 없다(不狂不及)’는 고사를 인용, “흙 한줌씩 쌓는다는 열정으로 모교중흥을 위해 미친 듯이 힘을 모으자”고 역설, 큰 호응의 박수를 받았다.

이용흠 본부동창회 회장은 우의를 다

지는 화합의 한마당을 3년만에 마련하게 된 의의를 재확인하면서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용마인의 결의와 역량을 결집하여 글로벌시대를 선도하는 기념탑을 건설하자”고 호소했다.

배재욱 경발위 공동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모교발전위원회는 소기의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할 것”이라고 약속하면서 “본부동창회와 재경동창회가 힘을 모아 모교발전기금 조성에 6만 동문들의 참여와 성원을 창출해 내자”고 당부했다.

이날 특별게스트로 초청된 허남식 부산시장은 “그동안 지역사회에 공헌한 용마인들에게 경의를 표한다”며 “명문 경남고”를 나온 우리 동문들의 활동상에 존경심을 내보였다.

김형오 동문(20회, 전 국회의장)은 “만약 내가 경고를 다니지 않았다면 오늘의 나는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회고하면서 특히 청장년층 동문들에게 “엘리트인 동시에 대중과 함께 하는 용마인이 되자”고 말했다.

이날 행사는 1부에 이어 모교가 배출한 세계적인 연출가 이윤택 동문(25회)이 기획, 연출한 축하무대가 화려하게 펼쳐지는 가운데 시중 흥겹고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 <8, 9면에 상보>

인물 포커스

김석동 동문(26회) 금융위원장 취임



경남중 졸업 후 경기고, 서울대 경영학과를 나왔다. 행정고시를 거쳐 재경부에 들어가 고속승진으로 요직을 두루 거쳤다.

재경부 1차관을 끝으로 공직을 떠났다가 올 1월 1일자로 금융위원장으로 화려하게 공직에 복귀했다.

김 동문은 금융실명제(1993년), 부동산실명제(1995년), 외환위기(1997년), 신용카드 사태(2003년) 등 국가경제의 위기상황에서 구원투수 역할을 도맡아 '대책반장'이란 별명을 얻었다. 2003년 카드사태 당시 관치논란에 대해 '관(愆)은 치(治)하기 위해 존재한다'며 정부의 시장 개입이 필요하다는 소신을 밝혀 화제가 되기도 했다.

업무에서는 강력한 추진력과 카리스마를 보이거나 성격이 화통하고 리더십을 갖춰 공무원 조직내 후배들의 신망이 높다. 마당발로 각계에 인맥이 두텁다. 경남중 동문들과도 만남을 이어가고 있는데, 강만수 경제특보와 허태열 한나라당원이 대표적인 동문선배. 언론과의 관계도 좋아 정식 대변인 자리에도 한번도 몸담지 않았음에도 '명예 부대변인'이란 애칭을 들었을 정도. *

김대식 동문(32회)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취임



기회 있을 때마다 "이명박 대통령은 성공한 대통령이 돼야 한다"는 신념을 강조하는 'MB팬'이다. 부산 동서대 교수로 재직하던 2003년 이 대학에 특강을 왔던 당시 이명박 서울시장을 만나 핵심 지지자가 됐다.

김 동문은 지난 대선에서 전국 최대 규모의 조직체인 '선진국민연대' 결성을 주도, 이명박 대통령의 당선에 크게 공헌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대선 승리 후 대통령직 인수위원을 거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사무처장을 맡았다.

전남 영광 출신으로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전남지사 후보로 나서 13.39%의 득표율을 얻어 정지권을 깜짝 놀라게 했다. 이어 지난해 7월 한나라당 전당대회에서 유일한 원외인사로 대표최고위원에 도전, 13명 후보자 가운데 9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가난한 어린시절을 보낸 자수성가형 인물로 이명박 대통령의 두터운 신임을 받고 있다.

평소 동창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 *

김경희 '경남중고동창회 70년사' 편찬 실행위원장

“재미있고 유익한 내용으로 용마의 다양성 담아 낼 터”

“동창회의 해묵은 숙제인 70년사 발간 책임을 맡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그러나 용마의 도전정신과 잠재력을 믿고 맡은 바 책임을 다해낼 각오다”

‘경남중고동창회 70년사’ 발간 총책임을 맡은 김경희 실행위원장(9회) <사진>은 나이답지 않게 열정에 찬 뚜렷하고 힘찬 목소리로 입을 뗐다.

- 70년사 발간 의미는?

“동창회사를 편찬하지는 첫 논의는 24년 전인 1987년에 있었다. 그 후 여러 본부동창회 회장들이 발간약속을 해왔으나 모두 구두선에 그쳤다. 이번에 이용홍 본부동창회 회장의 결단으로 실로 24년 만에 첫 삽을 뜨게 된 것이다. 우리 모교와 동창회의 역사를 정리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동문들의 자존심을 일깨우고 미래를 열어가기 위한 작업이라는 의미가 있다”

- 방대한 작업이 될 것인데, 어떤 내용을

어떻게 담느냐가 중요할 것이다.

“70년사는 우선 읽을거리가 풍부하고 재미가 있어야 한다. 또한 유익한 정보가 많이 담아야 한다. 그리고 우리 용마가족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내용이어야 한다. 읽히지 않는 70년사는 무의미하다. 따라서 내용이 딱딱하거나 어려워도 안 된다”

-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정사(正史)는 물론이고 이면사(裏面史)와 각 기수별, 직능별 동문들의 유니크한 스토리를 많이 발굴해 기록하겠다는 것이다”

- 작업 수순은?

“먼저 전문가들로 기획위원회를 구성해 70년사에 담을 구체적인 내용들을 꼼꼼히 정해야 할 것이다. 서울과 부산에 열정을 가진 동문들로 편찬위원을 두고 그 아래에 실무를 맡게 될 편집위원들을 둘 생각이다.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수집, 정

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한다”

- 예산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작업에 참여할 동문들에게 막연하게 협조하라거나 봉사를 요구해서는 제대로 된 70년사가 나오기 어렵다. 전문가들이 동원돼야 되는 일이다. 적지 않은 예산이 필요한 것도 이 때문이다. 제작비를 제대로 투입해야 좋은 작품이 나오는 것이다. 2월에 본부동창회는 물론 재경동창회와 예산문제를 구체적으로 논의할 생각이다”

김 위원장은 “우리 용마 동문들의 도전정신과 잠재력을 믿는다”면서 “전체 동문들이 70년사 발간에 관심을 갖고 동참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본부 덕형포럼 허남식 부산시장 초청 특강

본부 덕형포럼(회장 오거돈)의 제4회 초청 특강이 1월 14일 오전 7시 부산 롯데호텔 필름에서 열렸다. <사진>

이날 연사로 나온 허남식 부산시장은 평소 부산 시정에 관해 많은 협조와 격려를 보내는 경남중·고 동문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고 ‘부산의 비전과 발전 전략’이라는 제목의 특강을 했다.

조찬을 겸한 이날 모임에는 이용홍 본부동창회 회장, 조규향 동아대 총장(14회), 송규정 윈스텔 회장(16회), 정장부 동의대 총장(17회), 허범도 부산시 정무특보(22회), 권명보 국제신문사 사장(27회), 김태우 법무법인 국제 대표 변호사(27회), 이기우 부산시



경제부시장(27회) 등 동문 80여명과 정은아 부산지역여고동창회 연합회장, 이동호 부산롯데호텔 사장 등이 참석했다.

한편 이날 행사 경비 중 일부는 박종찬 동문(25회 동기회장, 제트코리아(주) 대표)이 협찬했다. *

고개 ~ 사자평 ~ 주암마을로 이어지는 구간에서 진행됐다.

오후 4시경 산행을 마무리한 일행은 식당 ‘베네치아’로 이동해 시상식을 가졌다.

용마산악대회는 1년 4차례 등반 모임에서 참석인원이 제일 많은 기수 순으로 순위를 정하는데 이번 대회에서는 33회가 1등, 23회가 2등, 31회가 3등을 각각 차지했다. 이날의 우승으로 33회는 3연패를 차지했다. *

31회, 프로골퍼 된 동기 아들 위한 후원회 결성

2011 코리아나투어 Q스쿨 프로테스트를 통과, KPGA 정회원이 된 김태근 동문(31회 동기회 국장)의 아들 동현군(22살·부곡CC)을 위한 ‘DH서포터즈’라는 후원회가 결성됐다.

31회 동기들이 주축이 돼 결성된 이 후원회는 앞으로 KPGA 무대에서의 활약이 기대되는 동현군에게 축하연을 베풀고 500만원을 동계훈련비로 전달했다. *

덕경회 신년 하례회 개최

덕경회(경남중·고 CEO 동문 모임)의 신년 하례회가 지난 1월 11일 오후 6시 30분 부산 롯데호텔 필름에서 있었다. <사진>



이날 모임에는 덕경회 회원들 뿐만 아니라 정·관계, 법조계, 학계, 언론·문화계 등 여러 분야에서 활동 중인 동문 등 60여명이 참석, 성황을 이뤘다.

장혁표 동문(8회), 임우근 신입재경회장(19회), 오거돈 해양대 총장(21회), 전재호 파이낸셜뉴스(주) 회장(21회), 진병화 기술보증기금 이사장(21회), 허범도 부산시 정무특보(22회), 조병현 부산지방법원장(28회) 등 참석자들은 건배 제의와 새해 덕담으로

선후배의 정을 나누었다. *

동창회장기 용마산악대회

동창회장기 용마산악대회가 지난해 12월 12일 영남 알프스 일원에서 열렸다.

용마산악회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100여명의 회원 및 가족들이 참가, 산행 능력에 따라 A·B팀으로 나눠 알프스산장 ~ 죽전

토끼의 지혜로 금년 한 해도 잘 풀어나갑시다!

신년사

올해가 '용마의 비상'의 원년이 되도록...

동문 선후배 여러분, 신묘 새해에 소원성취하시고 더욱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연말에 가졌던 '2010 용마의 밤'은 동문 여러분의 뜨거운 호응과 협조에 힘입어 성공적으로 치러낼 수 있었습니다. 그날 우리는 '모교중흥'의 결의를 확인하고 다짐하면서 한 마음이 되는 큰 감격을 맛 봤습니다.

지금 우리는 '모교중흥'을 위한 모교 발전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본부동창회는 재경동창회에 비해 모금활동을 늦게 시작했고 여러 가지 여건이 좋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단기간에 큰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언젠가 말씀드린 대로 국적은 바꿀 수 있어도 학적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의 영원한 마음의 고향인 모교가 고교평준화조치 이후 이류 삼류의 학교로 전락한 것을 더 이상 방치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올해에도 더 많은 참여와 적극적인 협조가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금년에는 본부동창회 회장단이 바뀌게 됩니다. 저는 취임한 이후 '젊은 동창회', '일하는 동창회'를 표방하며 우리 동창회의 개혁과 발전을 위해 나름대로 열과 성을 다해왔습니다. 그 결과 이제 우리 본부동창회에 변화의 새 바람이 불고 있으며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기초는 세워졌다고 자부합니다.

그 터전 위에서 차기 회장단을 중심으로 더욱 단합, 올해를 '용마의 비상'의 원년이 되도록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금년부터 본격화되는 '70년사' 발간에도 전 동문이 협조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 작업을 총지휘하는 김경회 실행위원장님께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올 한해 용마가족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만복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辛卯 새해 아침

이 용흠 (19회, 본부동창회 회장)



신년사

일치된 결의로 모교 중흥에 박차를...

신묘년 밝은 새해를 맞아 용마가족 여러분 가정에 만복이 충만하고 뜻하신 바대로 모두 성취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해 우리는 참으로 뜻깊은 한해를 보냈습니다. 모교 발전기금 조성 사업에 박차를 가했고, 3년만에 열린 '2010 용마의 밤'을 성대하게 치렀습니다. 명실공히 지난 2010년은 모교 중흥과 동창회 도약의 원년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저는 '2010 용마의 밤'에서 여러 동문들께 '불광불급' (不狂不不及)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미치지 아니하면 소기의 목표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2010 용마의 밤'을 통해서 그 같은 이치를 통감하고 모교 중흥의 결의를 다짐하였습니다. 참으로 가슴 뭉클한 자리였습니다. 대회장으로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친애하는 용마가족 여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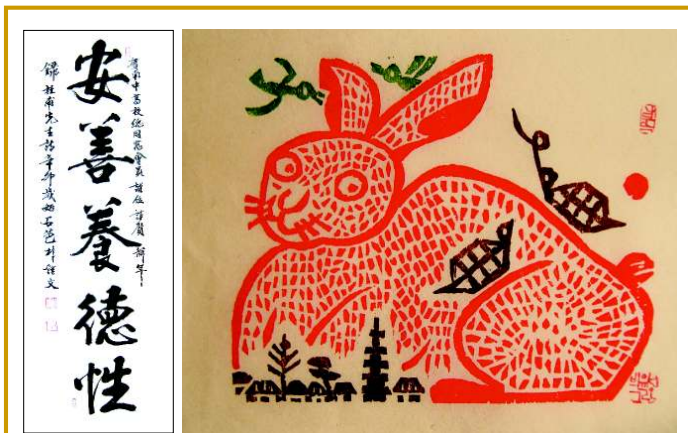
국회의장 신년사에서 저는 '태화위정' (太和爲政)을 강력히 호소하였습니다. 화합하면 필승이지만 갈라지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정치인들도 그러하지만 우리 용마인들 역시 더욱 굳건하게 결속하지 못하면 우리의 소망을 이룰 수 없습니다.

올해는 본부동창회와 재경동창회를 이끌 새로운 역군들이 등장합니다. 일치된 결의를 집결하여 명문의 영예와 위상을 유감없이 과시해야 할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정계에서 활약하는 우리 동문들이 소통과 화합에 앞장서서 괄목할 변화를 이루어내겠습니다. 용마인 여러분들도 기꺼이 동참해 주십시오.

새해에도 부디 강녕하시고, 특히 불철주야 재학생 지도에 심혈을 기울이시는 모교 재직 선생님들과 후배 여러분들도 건승하셔서 올해는 반드시 소원성취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辛卯年 元旦

박희태 (11회, 국회의장)



토끼는 지혜와 장수 상징하는 동물

석파 박종문 동문이 신년취호 보내 서양화가 박윤성 동문은 신년축하 판화작품

토끼해인 신묘(辛卯) 새해가 밝았다. 토끼는 지혜와 꾀를 상징하는 동물. 또한 토끼의 털이 긴 것과 관련, 장수(長壽)를 상징하기도 한다. 토끼털로 짠 실을 '명실' 또는 '명사(命絲)'라고 이름 붙여 예부터 서로 주고받기를 즐겨했다. 금년 한해 용마가족들이 모든 일을 토끼의 지혜와 꾀로 잘 풀어나가고 건강을 지켜 장수하기를 기원한다.

위의 붓글씨는 서예가인 석파(石岬) 박종문 동문(10회)이 신묘 새해를 맞아 회보 편집실에 보내 온 신년취호. '安善養德性'은 '착한 일을 함으로써 덕을 기른다'는 뜻.

왼쪽 판화는 서양화가 박윤성 동문(24회)이 신묘 새해 동문들의 강령을 바라며 회보 편집실에 보내 온 판화작품 '토끼 산(山)'. 토끼를 마을을 포근하게 감싸는 뒷산으로 형상화했다.*

덕경회 회장 오완수(11회)

신묘 새해 동문 여러분 가정에 만복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덕경회는 올해부터는 회원간의 친선도도 뿐만 아니라 모교와 동창회 발전을 위해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부덕형포럼 회장 오거돈(21회)

올해에는 초청강연 횟수를 늘려 우리 동문들이 각계에서 활약하고 있는 저명인사들의 격조 높은 강연을 더 자주 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묘 새해 소원성취하시기 바랍니다.



등대회 회장 주우실(22회)

더 따뜻한 마음으로 생각하고, 겸허함과 여유를 가지는 동문 선후배님의 신묘년 한해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해운·수산·물류 관련 동문모임인 우리 등대회에 많은 격려 있기를 기대합니다.

울산지역 회장 박흥조(22회)

새해에는 더 자주 만나고 동문 선후배간에 더욱 더 화합하는 한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모교 발전기금 목표 달성과 모교70년사 발간, 모교 역사관 건립에 명문의 저력을 보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용마산악회 회장 박수갑(23회)

'안전하고 즐겁고 편안한 산행'을 추구하는 저희 용마산악회는 올 한해도 백두대간의 정기와 100대 명산의 맑은 기운을 총동창회와 동문님들에게 맑게 돌려드릴려고 합니다.



새해에는 소원성취하시기 바랍니다.

창원지역 회장 김수용(24회)

용마를 위한 준비를 하며 작은 일부터 함께 나누는, 보다 즐겁고 유익한 그리고 편안한 동창회로 거듭나는 원년이 되길 바랍니다. 창원, 마산, 진해 통합지역 동창회로서 지역동창회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용마론인클럽 회장 권명보(27회)

신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용마론인클럽은 매월 정기모임을 갖고 각계의 자랑스런 동문들을 초청, 우의를 나누고 있습니다. 올해도 모교와 동창회 발전에 더욱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남지역 회장 윤형근(29회)

신묘년 정초에 일출로 유명한 여수 향일함에서 붉고 힘차게 떠오르는 해를 보았습니다. 우리 동문들의 올 한해를 보는 듯 했습니다. 지역토박이 동문들과 직장으로 인해 이 지역에서 근무하는 동문들 간의 원활한 교류를 위해 더욱 열심히 뛰겠습니다.



경남고 교장 김원웅

토끼해를 맞아 동문님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립니다. 교직원들의 열성과 학부모 및 동창회의 후원을 믿기름으로써 해서 올해 경남고가 옛 명성을 되찾기 위해 더욱 나아갈 것을 다짐합니다.



경남중 교장 차동렬(24회)

새해 동문님 여러분의 가정에 만복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금년 9월에 새 교사가 완공되면, 훌륭하신 동문님들을 모시고 자축하는 자리를 가지려고 합니다. 많은 격려 부탁드립니다.



<가수순 게재>

뜨거운 호응... 동문들의 모교중흥 열망 반영

본부동창회 접수분 4억원 넘어... 예상 밖 호응

본부동창회의 모교발전기금 모금운동에 동문들의 호응이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다. 작년 말 현재 본부동창회에 기탁된 기금은 4억원을 넘어섰다. 아직 재경동창회에 비해서는 크게 미치지 못하는 액수이나 재경동창회에 비해 1년여 늦게 모금운동을 시작한 점 등을 감안하면 본부동창회의 이같은 모금성과는 예상 밖이라는 반응들이다. 1천만원 이상을 내는 고액기탁자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도 고무적인 현상이다. 우리 동문들의 모교중흥에 대한 열망이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본부동창회는 기금을 낸 동문들에게 일일이 '기탁증서'를 발송하고 있다. *



최만식 동문(17회) 남기용 동문(12회) 김길제 동문(18회) 황태원 동문(19회) 허규판 동문(20회)

- 최만식 (17회, 대한색소공업(주) 회장) 5천만원**
- 남기용 (12회, 문교산업(주) 대표이사) 1천만원**
- 김길제 (18회, (주)MSC 대표이사) 1천만원**
- 황태원 (19회, (주)기명 대표이사) 1천만원**
- 허규판 (20회, (주)삼성산업 대표이사) 1천만원**
- 김봉호 (19회, (주)동화목재 대표이사) 5백만원**
- 박병철 (20회, 미국 거주) 5백만원**
- 김태영 (20회, (주)명신정유 대표이사) 5백만원**
- 이석조 (29회, 노스페이스 서면점/부전점 대표) 5백만원**
- 양종학 (4회, 전 부산남여중 교장) 3백만원**
- 이병찬 (23회, 삼일회계법인 영남본부장) 3백만원**
- 정순모 (4회, 계명대학교 이사장) 2백만원**
- 신원기 (20회, 르노삼성자동차(주) 상임고문) 2백만원**
- 차상곤 (20회, 동양제강(주) 부사장) 2백만원**
- 채경석 (20회, (주)오복식품 대표이사) 2백만원**
- 정상건 (23회, 좋은강안병원 소아청소년과 부원장) 2백만원**
- 성재일 (26회, 천세철강(주) 부회장) 2백만원**
- 박성철 (29회, 법무법인 정인 변호사) 2백만원**
- 김해곤 (30회, 김안과의원 원장) 2백만원**
- 박경수 (31회, (주)양산위생공사 상무이사) 2백만원**
- 최진섭 (31회, 최진섭신경외과의원 원장) 2백만원**
- 17회 동기회 1천1백만원 추가 (누계 6천7백20만원)**
 - 김백수(한국 C.M.B(주) 대표이사) 3백만원
 - 서정승(서정승 산부인과의원 원장) 2백만원 등
- 재동 경문회(동아대 재직 동문 모임) 2백만원**

<본부동창회 접수분>

- △ 故김근준(1회) 100만원 △ 오영은(6회) 200만원 △ 김봉길(8회) 500만원
- △ 김희철(3회) 30만원 △ 이길상(6회) 30만원 △ 故공상태(8회) 100만원
- △ 김주호(4회) 20만원 △ 임경택(6회) 10만원 △ 박동열(8회) 1000만원
- △ 박석만(4회) 20만원 △ 장재수(6회) 20만원 △ 윤상현(8회) 10만원
- △ 박홍기(4회) 30만원 △ 정건홍(6회) 10만원 △ 장혁표(8회) 100만원
- △ 양종학(4회) 300만원 △ 정상철(6회) 30만원 △ 김영국(9회) 10만원
- △ 장수호(4회) 100만원 △ 정세동(6회) 20만원 △ 김태영(9회) 10만원
- △ 정순모(4회) 200만원 △ 최상해(6회) 10만원 △ 성백규(9회) 10만원

기별 발전기금 모금 현황 - 2010. 12. 31 현재 -

(단위:만원)

기수	목표금액	실적	서울	부산	참여수	기수	목표금액	실적	서울	부산	참여수
1		100		100	1	28	15000	1440	1260	180	8
2						29	15000	2305	975	1330	23
3		1280	1250	30	6	30	15000	4860	2760	2100	79
4	5000	1880	1210	670	25	31	15000	4160	858	3302	64
5	5000	675	675		10	32	15000	250	120	130	5
6	5000	330		330	8	33	15000	170	90	80	7
7	5000	760	760		8	34	15000	120	120		2
8	5000	7120	5410	1710	44	35	15000	70	40	30	5
9	5000	760	580	180	12	36	15000	40	30	10	2
10	5000	6176	6176		64	37	15000	30	30		2
11	10000	1590	1410	180	8	38	15000	200	170	30	17
12	10000	12924	11732	1192	128	39	15000	70	10	60	5
13	10000	1520	1490	30	8	40	8000	20	20		2
14	10000	10300		10300	215	41	8000	1160	1160		4
15	10000	3360	2350	1010	12	42	8000	130	130		3
16	15000	7040	7020	20	45	43	8000	10		10	1
17	15000	15790	10170	5620	128	44	8000	240	240		22
18	15000	3500	2330	1170	24	45	8000				
19	15000	4920	3230	1690	59	46	3000				
20	15000	14700	10100	4600	113	47	3000	10	10		1
21	15000	8020	7910	110	49	48	3000				
22	15000	2240	2230	10	13	49	3000				
23	15000	10583	8853	1730	56	50					
24	15000	15000	10500	4500	139	51					
25	15000	12210	7180	5030	105	52					
26	15000	2400	2100	300	19	53		10	10		1
27	15000	480	430	50	11	익명		1000	1000		1
소계	265000	145658	115396	30262	1310	지역 및 기타		657	107	550	8
고액		335000	330000	5000	8	소계	240000	16952	9140	7812	262
서울 합계		454536	1185명			부산 합계		43074	395명		
누적 모금액		49억7,610만원				누적 참여수		1580명			

*고액 기부 동문: 8명(33억5천만원)
 *지역 및 기타 동창회: 뉴질랜드동창회, 부산 서하구동창회, 부산 재동경문회, 미 중서부동창회
 *현물 기부 동문: 천신일(15회) - 기숙사 가구 집기(1억5천만원 상당)
 배효원(22회) 서준희(26회) 임형규(26회) 황백(26회) - 기숙사 전자제품(5천만원 상당)

입금 계좌 안내

- 소득공제 혜택이 필요한 경우
(부산은행) 029-01-030712-1 예금주: (재)용마정학회 안강태
- 소득공제 혜택이 필요 없는 경우
(부산은행) 029-01-030713-0 예금주: 경남중고발전위원회 이용흠

- △ 이대규(9회) 100만원 △ 김준연(17회) 100만원 △ 허종현(17회) 30만원
- △ 한동대(9회) 50만원 △ 김창운(17회) 300만원 △ 현태일(17회) 100만원
- △ 공상기(11회) 100만원 △ 박가식(17회) 100만원 △ 17회마산동기회 100만원
- △ 김재곤(11회) 30만원 △ 박신도(17회) 200만원 △ 김길제(18회) 1000만원
- △ 백연균(11회) 30만원 △ 박인사(17회) 100만원 △ 김재창(18회) 50만원
- △ 심재룡(11회) 20만원 △ 박종구(17회) 100만원 △ 박준성(18회) 20만원
- △ 김선일(12회) 30만원 △ 박정홍(17회) 100만원 △ 황광건(18회) 100만원
- △ 남기용(12회) 1000만원 △ 송유근(17회) 30만원 △ 김문기(19회) 20만원
- △ 박종정(12회) 100만원 △ 서정승(17회) 200만원 △ 김봉호(19회) 500만원
- △ 엄태섭(12회) 30만원 △ 안정의(17회) 30만원 △ 김양곤(19회) 50만원
- △ 윤성희(12회) 12만원 △ 오태식(17회) 100만원 △ 김영우(19회) 100만원
- △ 이수영(12회) 10만원 △ 윤성욱(17회) 500만원 △ 안정모(19회) 20만원
- △ 탁혜정(12회) 10만원 △ 이건우(17회) 100만원 △ 황태원(19회) 1000만원
- △ 정철기(13회) 30만원 △ 이수창(17회) 100만원 △ 강석근(20회) 300만원
- △ 김정일(15회) 1000만원 △ 이세복(17회) 1000만원 △ 김세준(20회) 100만원
- △ 서정욱(15회) 10만원 △ 이우기(17회) 10만원 △ 김일석(20회) 100만원
- △ 강종국(16회) 10만원 △ 이종혁(17회) 100만원 △ 김형우(20회) 1000만원
- △ 강진중(16회) 10만원 △ 이형우(17회) 100만원 △ 김태영(20회) 500만원
- △ 김길호(17회) 100만원 △ 정량부(17회) 100만원 △ 박병철(20회) 500만원
- △ 김동수(17회) 500만원 △ 정태일(17회) 100만원 △ 백문찬(20회) 100만원
- △ 김두택(17회) 10만원 △ 조중언(17회) 500만원 △ 신원기(20회) 200만원
- △ 김무부(17회) 100만원 △ 천웅광(17회) 10만원 △ 차상곤(20회) 200만원
- △ 김백수(17회) 300만원 △ 최만식(17회) 5000만원 △ 채경석(20회) 200만원
- △ 김상천(17회) 100만원 △ 최성호(17회) 1000만원 △ 한기완(20회) 100만원
- △ 김승현(17회) 100만원 △ 하영수(17회) 300만원 △ 허규판(20회) 1000만원

모교발전기금 두 번이나 낸 오영은 은사(6회)

“이용흠군이 이렇게 앞장서서 애를 쓰는데...”

지난 12월 10일 '2010 옴마의 밤' 행사장에서 오영은 은사(6회)가 본부동창회 황유명 사무국장(29회)을 찾아 조용히 봉투를 전했다. 모교발전기금 1백만원이 든 봉투였다. 몇 달 전 일부러 본부동창회 사무실까지 찾아가 발전기금 1백만원을 낸데 이어 두 번째다.

- 지난 번에 내셨는데 또 내신 거네요.
“뭘 내가 형편이 좋아서가 아니고...내 제자인 이용흠군이 이렇게 앞장서서 애를 쓰는 게 안쓰러워서 도움이라도 줘면 싶어서 그러는 거지. 내가 내면 내 제자들이 자극을 받아(발전기금 내는 데)호응할 것 같아서 그랬지”
- 본부동창회에 발전기금을 내는 동문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동창회보를 보니 그렇더군요만. 그래도 아직 모자라. 동창회보에 나오는 기금 낸 사람 명단을 들여다 보고 있는데 내 제자들 중에 돈이 아주 많고 잘 사는 제자들도 아직 (발전기금) 안내고 있더라고”

그는 경남중고 동문이면서 경남중에서 영어를 가르친 은사다. 5회 졸업생까지는 '6년제 경남중'을 다녔으나 6회부터 경남중과 경남고가 분리돼 자신은 경남중을 졸업하고 바로 경남고로 진학해 사실상 '경남고 1기'인 셈이라고 했다.

오 은사가 경남중에 재직할 것은 1960년부터 1965년까지. 당시 경남중 야구부 부감독도 맡았다. 아득한 시절의 일인데도 당시 제자들의 이름을 일일이 기억하고 있다.

“이용흠군은 2학년 땡가 3학년 때 내가 담임했던 것 같고, 이번에 재경동창회 회장을 맡은 임우근군도 내 반 학생이었어. 한나라당 원내대표인 김무성군, 국회의장을 한 김형오군도 내가 담임을 맡았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어”

오 은사는 경남중에서 교편을 잡게 된 것이故 김근준 선배(1회) 덕분이었다고 털어 놓았다. 부산 개성중에서 교사로 근무할 때 어느 날 영어 공개시험수업을 했는데 김근준 선배가 그 수업을 참관하고는 '잘 가르친다'며 자신을 경남중

으로 전적 스카웃했다는 것.
“당시 경남중학교에 선생으로 들어가려면 돈을 써야 했고 뺨이 좋아야 했어. 그 들어가기가 어려운 경남중학교에 돈 한푼 안 쓰고 들어간 거지. 다 김근준 선배 덕이었어”
- 김근준선생님은 별명이 '제트기'로 당시 우리들에게는 아주 무서운 선생님이었는데요.

“맞아. '제트기'였지. 김근준선생은 몸 놀림이 아주 민첩하고 빨라서 그런 별명을 얻었었지. 나도 학생들에게 무섭기로는 '제트기'에 못지 않았어. 내 별명이 무엇이었는지 기억 안나? '폭격기'였어. 폭격기! 한번 날았다 하면 아주 폭탄을 퍼붓다시피 혼을 냈으니 그런 별명을 얻었던 거지. 하하하”
오 은사는 평생 교직에 몸 담았다가 지난 1997년 65세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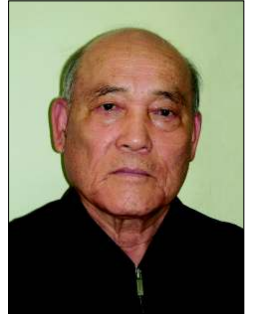
며 “한달에 한번 6회 동기 10명과 만나는 게 큰 낙”이라고 했다.

오은사는 요즘도 일어, 중국어, 영어 공부를 열심히 재미있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 연금만으로 지내시기가 어떤지요?

“아내와 둘이서만 사니까 그런대로 지낼 만 해. 내가 공무원연금에다가 국가유공자 유족연금까지 받고 있으니. 내 부친이 독립운동을 하신 분이거든. 일제 때 돌아가셨는데, 부친이 일제 때 독립운동을 하시면서 경상남도에 장로교 교회를 무려 14개나 세웠었지. 거제 장승포교회, 울산 방어진교회, 거창 교회 등등. 재작년 거창교회가 설립 100주년이라며 부친을 추모하는 행사를 한다기에 가서 유족대표로 내가 감사패를 받았어. 하여튼 아버지 덕에 유족대표로 연금도 받고, 내가 광복회 전국대의원이야”
- 자녀분은?

“딸만 넷을 뒀어. 이들은 없고. 딸 둘은 미국서 살고 있고 둘은 근처에 살고 있어”
전화 너머로 들리는 목소리가 굵고 찌렁찌렁하신 게 올해 80살이라는 게 믿기지 않는다. 전화를 끊으려고 하니 급하게 한 마디 더 붙신다.
“마침 오늘(1월 14일)이 내 생일인데, 내 생일에 맞춰 전화를 해주었군. 하여튼 모교발전기금을 아직 안내고 있는 내 제자들이 금액이야 많은 작든 간에 다들 모교발전기금을 냈으면 해. 나 같은 사람도 작은 성의를 보태는데, 애교심을 발휘해야지” *



오영은 은사

“돈 많은 내 제자들 중에도 아직 기금 안낸 사람 많아”
경남중 영어교사 때 별명은 ‘폭격기’... ‘제트기’선생과 쌍벽 연금으로 생활... 텃밭 가꾸고 산에 다니며 한가하게 지내
“한 달에 한번 6회 동기들과 만나는 게 큰 낙”

서울 방배동 이수중 교장을 끝으로 교육계에서 은퇴했다. 서울 일대 중학교를 돌며 교감만 11년이나 했다고 했다.

- 왜 그리 교감 생활을 오래하셨습니다?
“나처럼 교감을 오래 한 사람도 없을 거야. 돈 안 쓰고 뺨 동원 인했으니 그런 거지. YS가 대통령할 때 옆에서 대통령님이 동문인데 뺨 좀 쓰라고 말씀을 했지만 그렇게 안했어. 교육자가 그러서는 안될 일이지”

그는 현재 사모님과 단 둘이서 경기도 군포시 금정동에서 은퇴생활을 하고 계신다. “연금으로 생활하며 집 가까이 텃밭에서 푸성귀를 가꾸고 산에도 다니며 한가하게 지낸다”

Table with 3 columns of names and donation amounts. Total: 4억 4,224만원 (as of Jan 7, 2011).

- 합계: 4억 4,224만원 <2011년 1월 7일까지>
기금기탁 관련 문의
동창회 사무실 황유명
Tel. (051)245-7551~3
Fax. (051)245-7550

동기회 소식

- ◇ 7회 = 작년 11월 8일 전북 내장산 일원에서 가을 야유회.
- ◇ 재경 14회 = 작년 11월 28일 서울 창덕궁 일원에서 가벼운 나들이. 42명의 동기들은 오전 10시 청덕궁 문화관에서 모여 최영환 동문의 안내로 창덕궁을 둘러보고 국일관에서 음식과 건강주로 뒤풀어.
- ◇ 15회 = 작년 12월 4일 부산 민락동 '용마횃집' (31회 오용환동문 경영)에서 부부 동반으로 61명이 참석한 가운데 송년의 밤 행사를 가졌다.
- ◇ 17회 = 작년 12월 17일 경성대 앞 컨벤션명가뷔페에서 2010년도 총회 및 송년의 밤을 개최. 60여명의 동기 및 그 가족들이 참석. 박신도 회장은 2011년에도 회장직을 연임하기로 결정.
- ◇ 18회 = 작년 11월 7일 경남 양산시 배내골에서 가을 야유회. 동기들과 그 가족들은 주암굴, 주암폭포 등을 구경한 뒤 숲블구 이보 만찬.
- ◇ 21회 = 작년 12월 28일 부산 영도 소재 한국해양대학교에서 정기총회 및 송년회를 개최. 부부동반으로 60여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 동기들은 동기인 오거돈 해양대 총장의 안내로 세계 정상급의 해양 스포츠 실력관을 체험하고 실습선인 한 바다호를 견학.
- ◇ 27회 = 작년 12월 4일 해운대 일루아 호텔에서 송년의 밤 개최. 90여명이 참석. 빙고게임 및 장기자랑, 27음악동호회인 '토색모(토요일 색소폰 모임)'의 초청공연 등을 즐겼다.
- ◇ 28회 = 작년 11월 14일 충북 단양도락산 일대에서 경부합동산행을 가졌다. 32

- 명의 부산 동기들과 21명의 서울 동기들은 4시간 여 도락산 산행을 마친 후 마늘 요리 전문 식당 '장다리'에서 먹고 마시며 밤 8시까지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 ◇ 29회 = 작년 12월 17일 부산 범일동 '일미횃집'에서 송년회.
- ◇ 33회 = 지난해 11월 21일 밀양 표충사 일원에서 가족등반대회 개최. 20여명의 동기들은 재약산 일대를 등산한 뒤 죽구 및 카드놀이, 행운권 추첨 등으로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 ◇ 34회 = 동기들의 등산모임인 '34회 산악회'는 작년 12월 1일 서면 일원에서 송년회를 가졌다. 이날 13명의 동기와 11명의 동기 가족들이 참석.
- ◇ 35회 = 지난해 12월 3일 노블리아치푸드 뷔페에서 송년회.
- ◇ 37회 = 지난해 12월 9일 박철우 동기가 운영하는 주례 '물공과 꽃게'에서 2010 송년의 밤 개최. 30여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 김영근 현 회장이 2011년에도 회장직을 연임하기로 결정.

동호회 / 직능 동창회 소식

- ◇ 등대회 = 작년 12월 7일 제37회 정기총회를 개최. 이날 총회에는 회원 60여명과 남진현(19회) 본부동창회 부회장, 오거돈(21회) 본부동창회 수석부회장, 박영안(25회) 덕양회 회장이 참석.
- ◇ 용마회 = 전 현직 부산시 공무원 모임인 용마회는 지난해 12월 21일 오후 7시 국제호텔에서 송년의 밤을 개최. 이날 행사에는 조규우(16회) 동래구청장, 이종철(16회) 남구구청장, 남진현(19회) 본부동창회 부회장, 오거돈(21회) 본부동창회 수석부회장,

지역동창회 소식

울산지역동창회 = 정기총회 및 '용마의 밤' 개최

작년 12월 15일 저녁 울산 소재 롯데호텔에서 80여명의 동문들과 가족 등 약 1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를 겸한 용마의 밤 행사를 성대하게 개최. 이날 행사에는 울산지역 최고원로인 정원준(3회) 고문, 허홍욱(19회) 본부동창회 상임 부회장, 정갑윤(23회) 국회의원, 박맹우(25회) 울산시장 등이 참석.



1부 행사에서 동창회의 발전에 공이 큰 최인식(23회), 김관일(30회), 이효성(35회) 동문에게 각각 공로상이 전달됐고 이어 2부 행사에서는 장기자랑과 행운권 추첨 등으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이날 6년간 회장을 지낸 박홍조(22회) 회장에게 공로패를 전달.

대전지역동창회 = 송년회 개최

작년 12월 7일 대전 소재 아드리아호텔에서 송년회를 개최. 김성래 회장(24회)의 인사말로 시작한 이날 송년회에서 황경선(20회) 전 국방과학연구소 본부장의 특강 '천안함의 진실에 대한 강연'이 한 시간여에 걸쳐 있었다.

창원지역동창회 = 정기총회 및 '용마의 밤' 개최

지난해 12월 14일 오후 7시 창원 소재 풀만호텔에서 200여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2010년 정기총회 및 용마의 밤 개최. 이날 용마대상은 최신철 동문(25회), 공로패는 이환용(32회), 조시형(34회), 이대용동문(36회)이, 감사패는 윤정욱(32회) 윤기룡 동문(33회), 우정상은 김정암(29회), 홍정표 동문(31회)이 각각 받았다.

한편 차기 회장으로 김수용(24회)·(주)에코플라텍 대표이사) 동문이, 수석감사에는 조호제(21회), 일반감사에는 김석현 동문(23회)을 선임.

김동욱(23회) 부산시 국제교류센터 사무처장, 박창호(24회) 부산도시공사 감사, 정영석(24회) 전 부산시 환경관리공단 이사장, 양맹준(25회) 부산시립박물관장을 비롯하여 100여명의 회원들이 참석. 한편 이날 송년회에서는 이용홍(19회) 본부동창회 회장의 격려금과 김형오(20회)

국회의원) 동문의 축전도 전달됐다. ◇ 기록동문회 = 지난해 12월 18일 경남 고를 방문, 김원용 교장에게 학교발전기금으로 100만원을 전달. 이에 앞서 12월 13일에는 경남중을 찾아가 차동철 교장에게 학교발전기금 100만원을 전달.

어디서 무엇을...

- ◇(5회) △상기증 = 부산시 수영구 광안동 473-2 광안동SK부 103동 1402호, (051)612-5828
- ◇(8회) △이영희 =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대쌍령리 425
- ◇(9회) △김창국 = 12월 19일 삼남 결혼, 서울대 교수회관
- ◇(10회) △김오덕 = 1월 23일 장녀 결혼, 부천 새천년웨딩홀
- ◇(11회) △이상철 = 웰빙환경(주) 대표이사, 12월 17일 대한민국식품환경발명대상에서 '한국발명진흥회장상' 수상 △이재진 = 부산시 해운대구 우동 1008-5 동부윌리퍼타운 101동 2004호
- ◇(13회) △김간웅 = 12월 26일 장남 결혼, 누리엔웨딩홀 △신민철 = 12월 11일 장남 결혼, 부산 롯데호텔 △안성문 = 11월 14일 장남 결혼, 서울 신도림5컨벤션웨딩홀 △이중광 = 1월 2일 장남 결혼, 서울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
- ◇(14회) △백홍수 = 1월 22일 차녀 결혼, 서울 한국

- 거래소 국제회의장 △신승재 = 11월 6일 장남 결혼, 서울 노블레스웨딩컨벤션 △조정현 = 11월 26일 장남 결혼, 서울 JS강남웨딩문화원 △최충락 = 12월 5일 차남 결혼, 서울 아베웨딩
- ◇(15회) △김민조 = 12월 11일 장남 결혼, 해운대센텀호텔 △김양정 = 1월 23일 장남 결혼, 해운대센텀호텔 △이영정 = '(주)신영&D' 이사 취임, 010-4565-6674 △정강홍 = 11월 21일 장녀 결혼, 서울 데베일리하우스
- ◇(16회) △김한무 = 10월 9일 장남 결혼, 서울 안동교회 △양휘부 = 한국방송광고공사 사장, 미국 미주리주립대 한국총동문회 회장 선 △오광치 = 10월 10일 아들 결혼, 서울 건국대동문회관 △이광석 = 12월 18일 아들 결혼, 롯데호텔부산 △주낙근 = 12월 26일 아들 결혼, 서울 르네상스서울호텔 △황태우 = 10월 30일 차남 결혼, 서울 웨딩의전당
- ◇(17회) △강무웅 = 11월 20일 장남 결혼, 서울 노블레스웨딩컨벤션 △김평국 = 12월 5일 딸 결혼, 서울 뉴힐타호텔 웨딩의전당 △설순욱 = 11월 19일 차녀 결혼, 호텔리츠칼튼 서울 △양성일 = 부산시 금정구 두산로 47

- 창솔A, 플러스 2층 △어윤대 = KB금융지주 회장, '올해의 고대 경영인상' 수상 △이 기일 = 부산시 사하구 하단1동 1175 가락타운3단지 317-1001 △천용광 = 12월 4일 장남 결혼, 사직동교회
- ◇(18회) △김준일 = '(주)한양공업' 공장신축이전, 부산시 기장군 장안산업단지, (051)321-0005 △류중우 = 12월 4일 장남 결혼, 행복웨딩갤러리 △우원호 = 12월 11일 장녀 결혼, 뷔페라비웨딩홀 △이호국 = 1월 15일 장남 결혼, 백스코웨딩홀 △최상덕 = 11월 27일 차남 결혼, 안양 웨딩노블레스뷔페
- ◇(19회) △구자욱 = '명인약국' 대표, 부산시 동래구 사직2동 42-8, (051)501-6476 △김대인 = 12월 26일 아들 결혼, 해운대그린나래호텔 △김명수 = 12월 26일 아들 결혼, 오션드라마메르웨딩홀 △김영진 = 12월 26일 차남 결혼, 로터스웨딩홀 △김정길 = 부산시 북구 화명동 코오롱하늘채A, 205-504 △김차웅 = 12월 10일 장남 결혼, 미국 뉴욕 맨해튼 St. Regis 호텔 △윤영규 = 11월 14일 장남 결혼, 마리나컨벤션웨딩홀 △이정길 = 부산시 서구 압남동 255-1 송도탑스빌 1104
- ◇(20회) △김갑수 = 11월 28일 장남 결혼, 서울 연세대 동문회관 △김종민 = 12월 19일 장녀 결혼, 서울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 △박

- 대근 = 1월 8일 차녀 결혼, 서울 코엑스컨벤션홀 △윤재일 = 서울대 피부과 교수, 대한피부과학회 제53대 회장으로 취임 △이종찬 = 1월 16일 장남 결혼, 서울 GS타워 △장준기 = 1월 22일 딸 결혼, 씨사이드웨딩홀 △차용환 = 11월 13일 장남 결혼, 서울 GS타워
- ◇동기회 사무실 이전 : 부산시 부산진구 부전1동 474-8 유원O/T 11층 1113호
- ◇(21회) △김영삼 = 12월 5일 딸 결혼, 밀레니엄서울힐튼 △김윤철 = 12월 18일 장남 결혼, 서울 플라자호텔 △김재익 = 12월 18일 차녀 결혼, 사학연금S웨딩홀 △서병문 = 12월 11일 아들 결혼, 서울 GS타워 △신태운 = 1월 15일 차남 결혼, 서울 천주교반포성당 △이순희 = 12월 11일 차녀 결혼, 씨사이드웨딩홀 △최철수 = 1월 15일 장남 결혼, 서울 웨딩의전당
- ◇(22회) △허범도 = 부산시 정무특보(부시장급)에 취임. △김세곤 = 11월 20일 차남 결혼, 그랜드엠베서더서울 △김종인 = 대림산업 사장, 2010 건설플랜트의 날에 해외건설부문 '금탑산업훈장' 수상, '제6회 대한민국 CEO그랑프리' 대상 수상 △오태효 = 11월 21일 차남 결혼, 서울 엘타워 △장광훈 = 11월 27일 장녀 결혼, 서울 리버시티 △최성욱 = 12월 11일 장남 결혼, 서울 라투체

임우근 재경동창회 신임회장

“동문들의 참여 끌어낼 방도 강구하겠다”

임우근 경남중고 재경동창회 신임회장(19회) <사진>은 “동창회의 전통과 자부심을 지키고 발전시켜 나가는데 최선을 다할 각오”라고 밝혔다.

- 취임 소감은?
 “중책을 맡게 되어서 영광이고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동창회장은 누리는 자리가 아니라 동문들을 위해 봉사하는 자리다. 그런 초심을 잃지 않고 임기 동안 재경동창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

- 앞으로 재경동창회를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지.
 “크게 달라질 것은 없다고 본다. 역대 선배님들께서 가꾸고 다듬어온 전통을 살려나가면서 새로운 발전을 도모해 나가면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 모교증흥을 위한 모교발전기금을 모으고 있는데 목표액 100억원 달성에 어려움은 없는지...
 “현재까지 잘 돼가고 있으며 꼭 성공할 것이다. 다만, 특별조직이랄 수 있는 경발위가 주체가 돼서 기금조성을 주도하고 있으니 재경동창회로서는 경발위를 돕는 체제를 갖춰나갈 생각이다”

- 우리 동창회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라고 보는가.
 “참여의식 부족과 잘 화합하지 못하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동창회에 소극적인 동문들을 어떻게 끌어들이느냐가 숙제다. 참여의식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나가려고 한다. 동창회 활동은 회장 혼자서 하는 것

이 아니다. 동문들의 협조 없이는 회장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동문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 우리 동창회가 젊어져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맞는 지적이다. 동창회가 활성화하려면 지금 50대 초중반을 이루는 30회 이후 동거회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선배와 후배가 함께 스스럼없이 어울리고 편하게 만나고 대화하는 분위기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

- 일부 동창회와 더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전인 회장체제에서도 협조가 잘 됐다고 본다. 어디까지나 본부동창회는 우리 동창회의 심장이라 구심적이다. 최대한 협조하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다” * <박관우 동문(36회, 불교방송 기자)>

<23회>

△강상대 = ‘아주경제’ 온라인국장 겸 편집위원장 △김태정 = 12월 26일 아들 결혼, 서울 코엑스컨벤션센터 △서상병 = 12월 4일 장남 결혼, 서울 빌라드베일리 △정용성 = 1월 8일 장녀 결혼, 서울가든호텔 △정희원 = 서울대병원장, 11월 16일 한국U헬스 협회 2대 회장으로 선임 △조장래 = 12월 11일 딸 결혼, 서울 아현감리교회 △허대몽 = 12월 17일 장남 결혼, 서울 GS타워

<24회>

△권인식 = 12월 11일 아들 결혼, 서울 헤리츠웨딩컨벤션 △김무성 = 한나라당 원내대표, ‘제1회 코리아 정책상’ 수상자로 선정 △손성호 = 동아대 경영학과 교수, ‘한국산업경제학회’ 2011년도 회장으로 취임 △이효구 = 12월 17일 아들 결혼, 삼성동 서울컨벤션웨딩홀 △허규연 = 12월 18일 아들 결혼, 서울 그랜드인터컨티넨탈 호텔

<25회>

△김욱철 = 12월 11일 장남 결혼, 롯데호텔 서울 △김은호 = 12월 19일 장녀 결혼, 노보텔엠베서더부산 △김청수 = 12월 18일 딸 결혼, 서울 엘타워 △성대기 = 12월 18일 장녀 결혼, 서울 AW컨벤션센터 △승효상 = (주)종합건축사사무소 이도재 대표, ‘뉴유현대미술박물관 건축부문 컬렉션’에서 작품 ‘수백당’의 관련자료 전시 △신성우 = 한양대 건축학부 교수, 제9회 ‘한국 공학상’ 건축·토목분야 수상 △이상범 = 서울시립대 총장, 12월 1일부터 이틀간 ‘세무학 정립 10년’을 주제로 국제 학술대회 개최

<26회>

△이명진 = 12월 12일 장남 결혼, 서울 호텔라베라 △이정석 = 1월 22일 차녀 결혼, 남부산교회 △장상대 = 12월 18일 차남 결혼, 서울 강남목화웨딩문화원 △할재우 = 12월 12일 장녀 결혼, 서울 더베일리하우스

<27회>

△김안석 = 12월 31일자로 금정세무서장에서 동래세무서장으로 전근, 1월 15일 차남 결혼, 센텀임페리얼웨딩홀 △박득송 = ‘YTN’ 글로벌뉴스센터장으로 승진 △유영상 = 1월 8일 아들 결혼, 서울 역삼동성당 △이장섭 = ‘삼영화학공업(주)’ 전무, (02)755-3032 △이철 = ‘녹산한마음병

원’ 소아청소년과 과장, (051)974-8300 △한장호 = ‘춘천달걀비집’ 개업, 부산시 기장군 정관면 매화리 010-2582-6686

<28회>

△김용진 = 1월 29일 장녀 결혼, 대구 인터블고호텔 △송승기 = ‘(주)대흥INC’ 대표이사, (02)2639-8140 △양중명 = 12월 19일 장남 결혼, 해운대그린라레호텔 △엄재홍 = 1월 16일 장녀 결혼, 파라다이스호텔 부산 △오호석 = 12월 18일 딸 결혼, 서울 테크노마트웨딩시티 △윤대주 = 11월 13일 장녀 결혼, SK허브웨딩홀 △임재덕 = 1월 1일부로 고려제강 포항연구소 연구원장으로 승진 △정인식 = 진해 ‘STX조선소’로 이전 근무

<29회>

△박성재 = 12월 19일 장남 결혼, 서울 노블레스웨딩컨벤션 △유성기 = 12월 18일 장녀 결혼, 서울 신라호텔 △장강태 = 12월 26일 장남 결혼, K웨딩홀 △홍봉택 = 11월 28일 장남 결혼, 부산 르네상스호텔

<30회>

△공영호 = ‘두산기술원’ 두산중공업 팀장, 011-9085-0678 △김성복 =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진구지사 근무 △김정형 = ‘마니수입구제’ 대표, 010-8880-8403 △김재현 = ‘(주)태광’ 서울사무소 상무이사, 010-8522-1887 △마침수 = 부산시청 재난안전과 과장에서 교통정책과 과장으로 전보 △박진수 = ‘김해뉴스’ 사장 취임, (055) 338-6556 △백기연 = ‘푸르텐셀사회공헌재단’ 이사, 010-9070-7301 △석대식 = ‘금호석유화학’ 전무로 승진 △안민수 = ‘삼성생명’ 부사장으로 승진 △이선광 = ‘한국전력’ 서울본부 근무 △이영일 = ‘한국수력원자력’ 건설기술처 설계기술팀장 1급으로 승진 △인준승 = ‘한국전력’ 경주지점으로 전근 △장창국 = 11월 14일 장남 결혼, 서울 세종문화회관 △조승환 = ‘조이스성형외과’ 개업, 부산시 연제구 연산5동 (051)851-0153 △최영규 = ‘한미퍼센스(김리)’ 울산현장 근무

<31회>

△권해철 = ‘해성엔지니어링’ 대표, 부산시 금정구 남산동 101-10 △김광현 = ‘포세이돈부동산’ 개업, 부산시 해운대구 우동 (051)731-1270 △김준권 = ‘신풍유지(주)’ 개업, 부산시 금정구 금사동 (051)316-

0050 △김태주 = ‘코오롱인더스트리’ 전무로 승진 △안중수 = ‘(주)부경엔지니어링’ 대표, (051)583-4155 △이원철 = 12월 12일 장녀 결혼, 부산 지오플레이스 △이정근 = ‘한국도로공사’ 경남지역 본부장

<32회>

△이인광 = ‘현대자동차(주) 남양연구소’ 책임연구원·연구개발업체 기술지원팀장으로 전근

<33회>

△김기산 = 거제육포고등학교 교감으로 승진

<34회>

△김휘석 = ‘실로암광고기획’ 이전개업, 경기도 구리시 교문동 807 성화B/D 3F △노승환 = ‘삼성전기’ 수원본사 인사담당으로 전근

<35회>

△권준석 = ‘오라당구장’ 대표, 부산 광안리 돈비치호텔 후문임구 마린B/D 1F △문찬호 = ‘SK E&S’ R&D센터장으로 승진 △정총길 = 1월 1일부로 ‘STX건설 가나법인’ CFO 발령

<36회>

△김진수 = ‘LG이노텍’ 플란드공장 법인장으로 승진 △박철중 = 경상일보 광고국장 승진 △최정형 = 11월 16일부로 행정안전부 부이사관(정보화전략실 정보화총괄과장)으로 승진

<37회>

△박규배 = ‘국민은행 해운대PB센터’ 지점장으로 승진, 010-7533-1028 △박철우 = 식당 ‘물꽂과 꽃게’ 확장 이전, 부산시 부산진구 개금3동 010-7312-2661

<38회>

△우중환 = 베이직하우스 대표, 2010년 IT 이노베이션 대상 시상식에서 ‘지식경제부장관 표창상’ 수상

<39회>

△김원범 = ‘LG전자’ 총괄인사팀장으로 승진 △박종국 = ‘올리버HOF&BAR’ 개업, 부산시 사상구 모라동 신모라 사거리 부근 △이진호 = ‘대림코퍼레이션(주)’ 상무로 승진

<41회>

△김찬원 = 송파경찰서 정보계장으로 승진

<49회>

△조원덕 = 1월 23일 결혼, 대구 결혼의 전

당 베르사유 <50회>

△강봉규 = 삼성라이온즈 야구선수, 12월 26일 결혼, 고려대 교우회관

<53회>

△이창현 = 12월 11일 결혼, 서울 헤리츠웨딩컨벤션

<56회>

△김세진 = 12월 4일 결혼, 서울 해피데이웨딩컨벤션

부음
권오현 총동창회 고문 별세

부산일보 사장을 역임한 권오현 총동창회 고문(1회)이 지난해 12월 22일 오전 1시 별세했다. 향년 82세.

1928년 부산에서 태어나 모교와 부산대 영문학부를 졸업한 권 동문은 54년 민주신보 기자로 언론계의 입문한 뒤 58년 부산일보로 옮겨 이사, 수석논설위원, 편집국장 등의 요직을 거쳐 사장까지 지냈다.

유족으로는 아들 옹화(개인사업), 옹진(시원한이비인후과의원 원장), 옹후(권옹후비뇨기과의원 원장)씨가 있다. *



▲김용환(6회) = 작년12월 27일 별세, 인천 부평세림병원 ▲노신일(7회) = 1월 5일 별세, 영락공원 ▲이병재(8회) = 작년12월 27일 별세 ▲하봉수(10회) = 작년12월 15일 별세 ▲강주덕(11회) = 작년12월 17일 별세 ▲윤양부(13회) = 작년12월 11일 별세, 서울 청구성심병원 ▲이효준(13회) = 작년12월 9일 별세, 김해 이종은중앙병원 ▲양일남(14회) = 1월 3일 별세, 인창요양병원 ▲고병열(15회) = 작년11월 13일 별세, 좋은강안병원 ▲박재현(19회) = 작년11월 14일 별세, 부산대병원 ▲조근재(23회) = 작년12월 28일 별세 ▲유상재(25회) = 작년11월 5일 별세 ▲한명철(27회) = 1월 1일 별세, 동아대병원 ▲권오경(30회) = 작년11월 6일 별세, 삼성서울병원 ▲장재호(30회) = 작년12월 14일 별세, 서호병원

2010 '용마의 밤'은 뜨거웠다

'2010 용마의 밤' 스케치

'후라 쟁고' 목 터지게 외치며 모두 하나가 됐다

○... 3년 만에 열린 '2010 용마의 밤'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형식과 내용으로 진행돼 '대 성공'을 거두었다는 게 정평. 이윽흠 본부동창회 회장은 이번 용마의 밤을 '입기 중 마지막 작품'이라며 처음부터 고심하며 꼼꼼히 챙긴 것이 결과적으로 '대박'으로 이어졌다는 것.

특히 발상을 전환해 국회의장인 박희태 동문을 대회장으로 추대한 것과 세계적인 연출가로 유명세를 타고 있는 이윽흠 동문에게 총연출을 맡긴 것은 이 회장의 '통큰 결단'에 따른 것이었다는 후문.

○... 이번 용마의 밤을 '전국적인 행사'로 치르기 위해 전국 지역동문회와 직능별 동문회 회장단들을 초청하고 자리배치를 따로 하는 등으로 각별히 배려함으로써 동창회 행사에 큰 변화를 주었다는 평가.

○... 종전 흔히 해왔던 뷔페식 식단을 배제하고 참석자들이 앉은 자리에서 서빙을 받도록 한 것도 이윽흠 회장의 강력한 주장에 따른 것이었다.

뷔페식으로 하면 분위기가 산만해질 뿐 아니라 무엇보다 참석자들에게 대한 예의도 아니다 라는 주장

이었다. 예상대로 앉은 자리에서 식사를 서빙 받자 장내 분위기는 한결 깔끔하고 안정적이었는데, 이때문인지 배재욱 재경회장 등 많은 동문들이 행사 준비 상황 등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 총연출을 맡은 이윽흠 동문은 '용마의 비상'이라는 컨셉으로 무대에 모교 원형관을 설치하고 12명의 연주자들로 구성된 관현악단이 모교 응원가를 비롯하여 경쾌한 주악으로 분위기를 돋우도록 해 이번 행사의 격을 한껏 높였다.

○... 대회장인 박 의장은 이날 참석한 동문들과 일일이 악수를 하며 호스트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내는 모습. 박 의장은 대회사에서 "오늘은 정말 감격스러운 날"이라고 말하면서 "미친 듯이 힘을 모아야 한다"며 매우 자극적인 수사를 동원하는 등 이날의 분위기를 이끌기도.

○... 전국 각지에서 온 동문들이 줄 이어 입장하자 주최측은 900석에 이르는 좌석이 부족하지 않을지 행사 시작 전부터 긴장. 특히 전 현직 국회의장을 포함하여 정치권의 '거물'과 원로, 저명 인사들이 속속 출현하면서 당초 넉넉하게 마련했던 귀빈석은 초반엔 사례를 이루어 주최측은 즐거

운 비명.

특히 정계, 재계, 관계, 학계의 리더들이 대거 참석, 용마인의 위상을 새삼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주요 TV방송국의 카메라 취재기자들의 열띤 취재에서도 나타났는데, 동창회 행사에 보도 카메라가 취재 경쟁을 벌이는 일은 극히 드문 일.

○... 장내가 만장을 이루자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고, 박희태, 김형오, 김무성, 서병수 등문 등 여당 실세들을 위시하여 '민심'이 아쉬운 여러 동문들은 테이블을 라운딩하며 참석 동문들에게 일일이 악수 공세를 폈고, 동문들도 뜨거운 박수로 화답.

○... 오거돈 수석부회장의 '격정적'인 개회 선언으로 시작된 행사 1부는 부산문화방송 앵커로 활약한 바 있는 김재철(30회) 동문의 사회로 예의 "말씀잔치"가 이어졌다.

박희태 대회장이 '불광불급'이라는 4자성어를 동원, "우리 모두 미치자"며 초강경 메시지를 던지자, 이윽흠 회장은 "3년만에 열리는 축제인 만큼

오랜만에 '후라 쟁고'를 목 터지게 외치고, 교가도 우렁차게 불러보자"고 하며 "동문들 간의 존경과

사랑, 우정을 나누고 확인하며 용마의 비상을 다잡하는 자리를 만들자"고 호소하는 등으로 분위기가 고조.

또한 이날 오완수, 김경희, 김무성 동문 등 여러 동문들이 건배를 제의했는데 역시 저마다 개성 있는 건배사로 분위기를 돋우었다. 특히 모교70년사 집행위원장에 추대된 김경희 재경 고문은 건배 구호로 "70년사 편찬하자!"를 소리 높게 외쳐 박수 갈채를 받기도.

○... 행사 2부는 이윽흠 동문이 기획, 연출한 뮤지컬 갈라쇼 '용마의 꿈'으로 진행. 날개를 펼치는 용마가 등장하자 박수가 연발. 가락국의 무사로 분장한 연희단 거리매 단원들은 백두에서 발원하여 구석산에 이르는 모교의 정기를 서사적으로 구성한 뮤지컬을 장쾌한 울동으로 무대 안팎을 가리지 않고 열띤 공연을 벌여 박수갈채를 받았다.

공연이 끝나고 사회자의 소개로 무대에 오른 이윽흠 동문에게 감사의 박수가 뜨거웠는데, KBS 부산방송총국 편성제작국장인 이남기(35회) 동문은 이윽흠 동문에게 "웡님, 쫓습니다!"며 격찬을 보내기도. * <이상룡(24회), 황유명 동문(29회)>



'2010 용마의 밤' 2부에서 이윽흠 동문이 연출한 '용마의 꿈'



축사와 건배제를 하는 모습들. 왼쪽에서부터 박희태 대회장, 이윽흠 본부



주요 참석자들의 케이크커팅(왼쪽), 시선을 끈 '용마의 꿈'

<협찬자와 협찬 내용>

△승후호(3회·본부교문) = 공기정정기 △이길상(6회·경야회 고문) = 보은병 △김기우(11회·재경·한양S&C 이사) = 롯데생활용품 10점 △안강태(11회·명예회장·대전조선 대표) = 김치냉장고 △차영일(13회·비뇨기과원장) = 남성건강용품 △구자신(14회·쿠쿠홈시스 회장) = 전기밥솥 2점, 가습기, 전기주전자 △

신준호(14회·재경고문·(주)푸르림 회장) = 미스터커피 20BOX △조규향(14회·동아대 총장) = 흡삼잔액 5점, 웰초 5점 △백승진(15회·월간부산 대표) = 트렉스타 여성용 워킹화 △정량부(17회·동익대 총장) = 흥삼 동충화초 에센스마스크 10개 △노준건(18회·글로벌심층수 대표) = 심층수 900병 △이윽흠(19회·총동창회장·일신설계 회장) = 노트북, 로봇 청소기 △임우근(19회·재

경차기회장·한성기업 회장) = 참치캔세트 15점 △강창수(21회·대경F&B 대표) = 명란젓 세트 20점 △오거돈(21회·본부수석부회장·한국해양대총장) = 생활용품 10점, 흥삼세트 2점 △주우실(22회·등대회장·에이스플러스 대표) = 고급우산 10점 △곽두희(24회·본부덕형포럼 운영위원장·디섹 대표) = 수제 약주잔 세트 10점 △좌상봉(25회·호텔롯데 대표) = 소공동 롯데호텔 스위트

<일간지 광고 협찬>

◇ 100만원 광고: △대전조선(주) 대표이사 안강태(11회) △대한제강(주) 회장 오완수(11회) △효산의료재단 안양샘병원 이상택(13회) △쿠쿠홈시스(주) 회장 구자신(14회) △(주)푸르밀 회장 신준호(14회) △(주)정공산업 대표이사 김경일(15회) △(주)원스틸 회장 송규정(16회) △조광포인트(주) 회장 양성민(16회) △(주)국보 회장 윤성욱(17회) △(주)MSC 대표이사 김길제(18회) △(주)기명 대표이사 황태원(19회) △전 국회의장 국회의원 김형오(20회) △희성그룹 회장 구분영(21회) △파이낸셜뉴스(주) 회장 전재호(21회) △GS그룹 회장 허창수(21회) △천일여행그룹 대표이사 박재상(22회) △(주)금강포스텔

<9면에 계속>

‘모교 중흥’ 다짐하며 화합 한 목소리



마의 꿈'에서 용마가 비상하는 장면이 연출되고 있다.



!부동창회장, 배재욱 재경회장, 김경희 재경교문, 김무성 동문(국회의원)



' 무대(중간)와 분위기를 이끈 12인조 관현악단(오른쪽).

대표이사 **이충덕**(23회) △(주)디섹 대표이사 **곽두희**(24회) △LG전자(주) 대표이사 **구본준**(24회) △(주)포스코건설 대표이사 **정동화**(24회) △(주)디오 회장 **김진철**(25회) △CJ제일제당(주) 대표이사 **김홍창**(27회) △SK C&C(주)사장 **정철길**(27회) △(주)녹십자 대표이사 **이병건**(29회) △(주)태광 대표이사 **윤성덕**(30회) △하나병원 원장 **정철수**(31회) △태흥이공업 대표이사 **유영환**(40회)

◇ 50만원 광고:
 △ DSG대동벽지(주) 대표이사 **강수현**(12회) △문교산업(주) 대표이사 **남기용**(12회) △차영일비노기과의원 원장 **차영일**(13회) △동아대학교 총장 **조규향**(14회) △경성대학교 총장 **김대성**(17회) △동의대학교 총장 **정량부**(17회) △경고운영위원회 위원장 **류명석** 부위원장 **성순미** △최성호비노기과의

원 원장 **최성호**(17회) △세영선박공업(주) 대표이사 **김경태**(19회) △행복한병원(밀양) 원장 **김진국**(19회) △부산명물횡집 대표 **박동화**(19회) △(주)대저토건 회장 **박웅덕**(20회) △현항공산업(주) 대표이사 **허남균**(20회) △대경F&B(주) 대표이사 **강창수**(21회) △한국해양대학교 총장 **오거돈**(21회) △장호법률사무소 변호사 **장호우**(21회) △한국하치슬터미널(주) 사장 **최원중**(21회) △삼우교통(주) 대표이사 **박홍조**(22회) · 울산지역 회장) △부산스타자동차(주) 회장 **유재진**(22회) △성도회계법인 대표 **박철병**(23회) △삼일회계법인 영남본부 본부장 **이병찬**(23회) △이현세무법인 부산지점 세무사 **이부식**(23회) △좋은강안병원 부원장 **정상근**(23회) △레프코리아(주) 대표이사 **박종찬**(25회) △한국도선사협회 회장 **송정규**(25회)

‘2010 용마의 밤’ 총연출 이윤택 동문(25회)

“내가 쟁고 나왔는데 우째 못본 체 할 수 있겠능교?”

모교와 동창회에 대한 애정과 의무감으로 총연출 맡아

“동창회의 송년회 같은 행사들은 대개 모여서 밥 먹고 노래하고 경품추첨하는 식으로 아까운 시간을 보내는데, 이번에는 그런 틀을 깨고 뭔가 새롭고 의미있는 형식과 내용으로 꾸며보려고 시도했습니다”

‘2010 용마의 밤’을 총연출한 이윤택 동문(25회)은 “우리 쟁고는 송년회를 해도 좀 남달라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일년 내내 뻘뻘한 공연스케줄에 쫓긴다. ‘세계적인 연출가’로 명성을 날리고 있는 그에게 ‘용마의 밤’을 연출해달라는 요청은 여러 모로 예우가 아닐 것이다. 그러나 그는 본부동창회의 요청에 흔쾌히 응했다. 모교와 동창회에 대한 깊은 애정과 어떤 의무감에서였다고 털어 놨다. “내가 쟁고를 나왔으니 우째 못본 체 할 수 있겠능교?”라고 웃으며 말했다.

“어떤 형태로든지 ‘용마의 밤’의 주인공은 용마입니다. 관념적인 용마가 아니라 구체적인 용마가 등장해야지요. 비록 규모는 작었지만 퍼포먼스로서 독점성을 갖추었다고 평가하고 보람 있는 공연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연출가인 그에게 ‘용마’는 ‘영도에 날고뛰는 용마’에 그치지 않는다. 기마민족섭의 기원으로 거

슬러 올라가 ‘용마’를 풀이한다.

“우리의 뿌리가 말 타던 기마민족이고 모교의 표상이 용마이므로 좀 비약하자면 경남고는 보통 학교가 아니라 ‘우리 민족의 학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기장수’ 설화에 등장하는 그 용마를 찾아야지요. 그런 역사성을 이번 ‘용마의 밤’ 무대에서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무대어건이나 시간과 경비 제한 때문에 욕심껏 하지는 못했지만...”

그는 동창회 모임의 방식이 달라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명문고 동창회인 만큼 남들처럼 ‘노래방에서 상품 추첨하는 식’으로 소중한 만남의 시간을 보내기는 아깝지 않느냐고 했다. “설사 먹고 노는 자리라고 해도 어떤 주제가 제시되고 테마를 깔고 진행되는 모임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래서 자신이 이번에 선보인 무대와 내용이 다른 학교동창회 모임에도 하나의 새로운 제안으로 수용되기를 바란다.

이 동문은 “예산이 제한돼 있어서 전체예산의 70% 이상을 영상제작, 조명, 무대장치, 음향에 충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아쉬웠다”며 “그래도 나로서는 즐거운 시도였고 만약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더 좋은 무대로 동문들과 만나고 싶다”고 말했다. * <이상홍 동문(24회)>

△한겨레체치와 원장 **김택영**(26회) △르네상스호텔 대표 **하원규**(26회) △법무법인 국제 대표변호사 **김태우**(27회) △법무법인 국제 대표변호사 **이원철**(28회) △진영루드(주) 대표이사 **최강호**(28회) △동진섬유(주) 대표이사 **최우철**(30회) △토안건설(주) 대표이사 **남기태**(31회) △(주)경민TNM 대표이사 **류명석**(31회) △마태상사 사장 **박중호**(31회) △의환은행 서면남지점 지점장 **이병태**(31회) △(주)고려개발 대표이사 **박명진**(33회) △동일철강(주) 대표이사 **장인화**(35회) △협성운수(주) 대표이사 **정운성**(35회) △알파신경외과의원 원장 **박인석**(39회) △신우회계법인 부산지점 공인회계사 **임태영**(40회)

◇ 30만원 광고:
 △(주)해진기업 대표이사 **이대규**(9회) △원조18번완대 대표 **이용웅**(13회) △만호제강(주) 회장 **김동수**(17회) △남철석유(주) 대표이사 **이세복**(17회) △남광석유판매(주) 대표이사 **이수창**(17회) △(주)은진개발 대표이사 **조종언**(17회) △한국지공공공업(주) 회장 **하영수**(17회) △(주)삼보산업 부사장 **이성일**(18회) △(주)신성그래픽력 화 대표이사 **장수일**(18회) △(주)우진 대표이사 **강석근**(20회) △(주)명신정유 대표이사 **김태영**(20

회) △르노삼성자동차(주) 상임고문 **신원기**(20회) △신동양엔지니어링(주) 대표이사 **윤병규**(20회) △한영상사 대표 **최현두**(21회) △I.B.STEEL(주) 대표이사 **김일봉**(22회) △동아산업(주) 대표이사 **김영기**(23회) △옥치과의원 원장 **옥치범**(23회) △(주)성광물류 대표이사 **김성권**(24회) △문화통신공업(주) 대표이사 **노상우**(24회) △(주)위트테크놀러지 대표이사 **강석철**(25회) △남산내과 · 신경과 병원 원장 **이봉춘**(27회) △(주)이노엔디 회장 **배철영**(28회) △김대영치과의원 원장 **김대영**(29회) △노스페이스 서면 · 부전점 대표 **이석조**(29회) △변호사 조한욱 법륜사무소 변호사 **조한욱**(29회) △상명무역 대표 **김현태**(30회) △법무법인 정인 변호사 **이학수**(30회) △고엽제전우회상조 부산지사 지사장 **김태근**(31회) △(주)KCC상사 대표이사 **오민일**(31회) △(주)상마Hits 대표 **오용환**(31회) △(주)정우특수 대표이사 **홍성수**(31회) △미래철강(주) 대표이사 **김종식**(32회) △(주)한아스틸 대표이사 **안태원**(32회) △시민여객자동차(주) 대표이사 **이민재**(32회) △김&정 신경외과의원 원장 **김범영**(33회) △이광호성형외과의원 원장 **이광호**(33회) △밀양정형외과의원(밀양) 원장 **김용백**(34회) △수미지비

인후과의원 원장 **이재완**(34회) △(주)태영ENG 상무이사 **김병화**(35회) △유어스치과의원(양산) 대표 원장 **장영조**(35회) △부산치과의원 원장 **김병주**(36회) △푸른내과(양산) 원장 **김영곤**(37회) △성창수치과의원 원장 **성창수**(37회) △동원한의원 원장 **김승일**(38회) △장이쁜의원 원장 **김중진**(38회) △동아탕커(주) 대표이사 **이종명**(38회) △국제사 대표 **안승진**(39회) △미광운수(주) 대표이사 **정성윤**(39회) △강촌해마리타운 대표이사 **백창봉**(41회) △송강회계법인 부산지사 공인회계사 **박동식**(42회) △초량한의원 원장 **임진성**(43회) △부산스타자동차(주) 차장 **오용승**(46회) △재경지역 회장 **배재욱**(17회 · 변호사) △용마바둑회 회장 **강수경**(21회) · DSG대동벽지(주) 상무이사) △등대회 회장 **주우실**(22회) · (주)에이스플러스 대표이사) △용마산악회 회장 **박수갑**(23회) · 부산공인노무사 부소장) △창원지역 회장 **이상철**(23회) · (주)HRD코리아 대표이사) △용마인문인클럽 회장 **권명보**(27회) · 국제신문 사장) △전남 · 하동 · 남해지역 회장 **윤형근**(29회) · 여천YNCC(주) 상무) △경수회 회장 **김두섭**(34회) · 김내과의원 원장)

보수동 헌책방골목 지킴이 양수성 동문(46회)

헌책방 경영하며 '책방골목 문화행사' 7년째 이끌어

부산 보수동 헌책방골목에 새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동문이 있다. 법원 방향의 입구 쪽에 '古서적'이란 간판의 헌책방을 13년째 경영해오고 있는 양수성 동문(46회) <사진>. 그는 '보수동 책방골목 변형회'의 총무를 맡아 매년 9월이면 열리는 '책방골목 문화행사'를 7년째 이끌어 오고 있다. 이 때문에 그동안 인륜을 많이 타 이 바닥에서는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알 정도로 유명인사가 됐다.



데 이 중 30% 정도가 한적이다. 그 중에는 일제 때 출간된 '조선어사전'이나 대한제국 때 발행된 대한매일신보 같은 귀한 물건들도 적지 않다. 지금까지 그가 거래한 헌책 중 가장 고액으로 팔았던 책은 조선시대의 한의학 관련 고서로 권당 2천5백만원에 거래했다고 한다.

그는 "헌책방은 돈이 안되는 일"이라면서도 매일매일 책 먼지와 씨름하는데 열심이다. "책이 좋아서"란다. "한 권의 책이 세상에 나온 후 걷게 되는 행로가 사람의 일생과 닮아 있다. 사람보다 더 길긴 생명력이 가진 물건이 책"이라고 말한다.

양 동문은 "경남고를 나온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동문 선후배가 보수동 책방골목에 오면 꼭 자신의 가게에 들려 차 한잔 하고 가라고 당부했다. *

양 동문은 고교졸업 후 경남전문대(현 경남정보대)에서 중문(中文)을 전공했다. 대학졸업 후 바로 중국에 어학연수를 가 1년 7개월여 머문 후 귀국, 부친으로부터 가게를 물려 받아 헌책방을 열었다. 그게 13년 전의 일이다.

그는 주로 조선시대의 한적(韓籍)과 60년대의 양장본 고서를 취급하고 있다. 골동품점과 회랑을 경영하는 부친에게서 많은 것을 배우면서 고서에 대한 전문가로서의 안목을 키워 왔다. 그는 "서지학적 전문성 없이는 이 장사를 못한다"고 말한다. 가게를 찾는 손님과 고서에 대해 몇 마디 주고 받아보면 '선수'끼리는 금방 상대방의 수준과 실력을 알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 그의 가게에는 약 10만권의 헌책이 있는

九德골 카메라 산책 -교문



항상 긴장해야 했던 등굣길의 교문

사진 속 지금의 교문이 옛 모습 그대로인 것 같기도 하고 어딘가 변한 것 같기도 하다. 설사 세월 따라 변했다고 해도 어디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꼬집어 낼 수가 없을 만큼 이미 기억은 희미해졌다.

등굣길의 교문은 항상 긴장해야 하는 곳이었다. 교문이 눈에 들어오면 비뚤어진 교모를 바로 쓰거나 한두 개 열어뒀던 교복단추도 마저 채우고 옆구리에 쥔 책가방도 안전하게 손으로 바꿔 들곤 했다. 완장을 찬 기술부 학생들이 늘어서 있는 가운데 훈육주임 선생님이 버티고 서서 눈을 번쩍이며 용모검사를 하곤 했기 때문이다. 장발(長髮인) 학생들은 아침부터 훈육선생님에 의해 가위로 한 일자(一字)로 부분 삭발을 당하는 날벼락을 맞기도 했던 곳이 바로 이 교문이다. 그래서 교문에서의 장발단속을 피해 구석산 쪽 담을 넘어 등교하는 학생도 없지 않았다. *

"협약한 세상, 고약한 구설수를 만나....." 밀턴의 <실락원(失樂園)>에 나오는 구절이다. 철저한 공화파로 자유를 위해 싸우다 왕당파에 패배하고 눈까지 먼 작자가 어린 딸의 인도를 받으며 쓴 작품으로 또한 자신의 고단한 처지를 토로한 명구다. 고3 국어교과서 122쪽에 이 구절과 함께 실린 최재서 선생의 밀턴에 관한 글을 보고 어찌나 감동한 나머지 현대문 선생님을 찾아가 문화비평을 공부해보고 싶노라고 포부를 말씀드렸더니 우리의 영원한 '회갑이' 이훈경 선생님께서 다음과 같이 일갈하시었다. "야, 임마! 남자로 태어나서 세계를 제패 못하거든 오 입을 하든지, 오입을 못하겠거든 술이나 마실 것이지, 쓸데없이 남의 글에 비평은 무슨 비평!"

그로부터 사십여 년. 세계 제패는 커녕 마누라님 치마폭에 숨어 소주 한 잔도 제대로 못 마시는 지금, 육욕을까 무서워 고작 옛날 한시 가지고 죽은 아이 부랄 만지듯 쓸데없는 소리를 늘어놓는 일로 밥을 먹고 사는 김 모가 가장 부러워하는 것은 이 땅에 그리도 훌륭한 시인이다. 삼류 시인은 아무리 쓰레기 같은 시를 쓰더라도 이 세상 어딘가에 흔적은 남기지만 비평하는 자는 살아서는 육을 처먹

측상(廁上)에 쪼그리고 앉아

김성연의 人文산책

고 죽어서는 그 이름 한 자 남기지 못하기 때문이다. 보들레르는 비평가를 어찌나 싫어했는지 "지옥 문 앞에서 헐떡이는 개"라고 욕했고, 오스카 와일드는 소매 속에 탄알을 장전한 유희포를 항상 소지하고 다녔다고 한다.

인간의 노화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나이 들수록 창조적인 일에 관심을 기울이라고 충고한다. 창조 가운데 돈 안 들이고 남에게 폐 안 끼치는 가장 좋은 일은 시 쓰기다. 일본 온천 거리에 줄지어 붙어 있는 무명씨의 하이쿠는 그들이 비록 우리로부터 문화를 배워왔지만 배운 바를 창조적으로 승화시키는 열정을 가졌음을 일깨워준다. 예부터 시 쓰기에 가장 좋은 장소는 마상(馬上), 침상(枕上), 그리고 측상(廁上)이라 했다. 마상은 곧 여행이니 타향에서 개고생하면서 고향을 그리워하는 시다. 당나라 시인 송지문의 <말 위에서 한식(寒食)을 맞다>같은 시가 대표

적이다. 침상은 침대 위나 주로 변방에 수자리 나간 님을 그리워하는 규방의 한을 담은 시가 많다. 마지막 측상은 화장실을 말한다.

옛날 화장실은 거저 따위로 대충 앞만 가려 놓았기에 쪼그리고 앉으면 대자연이 훤히 눈앞에 전개되게 마련이다. 더구나 고독한 혼자만의 공간에서 모든 정신을 집중하여 불일을 보노라면 그 어찌 시상이 떠오르지 않겠는가. 복사꽃 활짝 핀 봄날, 고려의 명재상 김부식은 측상에서 "바람간 복사꽃 만 점이 붉고"라고 읊고서 대를 찾느라 황문에 더욱 힘을 주었다. 그 때 반역자로 몰려 그의 손에 의해 죽은 정치상의 귀신이 나타나더니 "그게 시냐? '환한 복사꽃 점이 붉고'라 해야지!"하며 부식의 고추를 잡아당긴 결과 부식은 측상에서 죽었다고 전한다.

또 한 살 먹은 새해 아침에 측상에 앉아 세계를 제패할 방향을 궁구해보는 것도 좋겠지만 "한 손에 막대 잡고 또 한 손에 가시 쥐고 / 늪은 길 가시로 막고 오는 백발 막대로 치렀더니 / 백발이 제 먼저 알고 지름길로 오더라."고 물외자족(物外自足)의 시를 한 수 짓는 건 어떨까. <김성연 동문(24회, 동아대 교수, 한국한문학)>

Advertisement for '맛의 명작' (Taste of Masterpiece) featuring a bowl of red fish cakes. Text includes: '동문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맛의 명작이 날로 번창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21회 강창수·54회 강치범 올림'. Logos for OGDORISEN, SUCCESS DESIGN, and others are shown. Contact info: 본점: 부산시 서구 서대신동2가 70-2 / Tel. 051-255-7211~4. 지점: 서울시 서초구 잠원동 89-20 반포스마트빌딩 507호 / Tel. 02-593-6163, 6017~8.

“전보다 활기찬 동창회모습 보기 좋습니다”

| 차 한잔 합시다~ |

노기태 동문 (20회, 부산항만공사 사장)

만남 사람 : 이상룡(24회)

대화를 해보면 특유의 열정과 포스가 강하게 느껴진다. 건강한 체구에 우렁차고 거침없는 말투, 거기에는 소탈함과 진솔함을 바탕으로 하는 친화력까지 갖추었으니 어떤 자리에 앉아도 오래 그 일을 해온 사람처럼 어울리고 익숙해 보인다. 기업인에서 출발, 국회의원, 부산시 정무부시장, 부산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국제신문 사장 등을 두루 거친 그의 남다른 이력이 다 이유가 있었구나 싶다.

능력과 친화력으로 어떤 자리에 앉아도 익숙해 보여
- 관운이 좋다는 소리를 듣는데...

“없다고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나에게 맡겨지고 주어진 일에 겁먹지 않고 열심히 하다보니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는 2008년 7월에 부산항만공사 사장에 취임했다. 그 때 서울서 만난 기자들이 ‘낙하산 인사’라고 지적하며 비판했다. 그는 웃으면서 응수했다. “공수특전단 시절에 낙하산을 탄 이후로 40년 만에 다시 낙하산 댔다는 소리를 듣는다. 그런데 나는 부산에서 걸어왔기 때문에 낙하산이 필요없었다” 이에 기자들도 한바탕 웃고 말았다.

노 동문은 매사 당당하고 시원시원하다. 직무에 대한 소신을 밝히는데 주저함이 없다. 그런 기질이 때로는 부정적으로 비치기도 하는 모양이다. 이에 대해 그는 “실무자들을 제쳐두고 뒷선에서만 해결하려 한다는 말을 듣기도 했다. 그러나 실무진에서 잘 풀리지 않으면 최고 의사 결정자를 만나 의견을 전할 수 밖에 없는 것 아니냐. 아마 그런 나의 일에 대한 집착과 스타일이 오해를 사는 모양”이라고 해명했다.

- 취임 첫해부터 굵직굵직한 현안들을 해결해 내 ‘어려운 일을 쉽게 잘 풀어낸다’는 평가를 듣고 있는데...

“취임해보니 숙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북항재개발사업을 하루라도 빨리 착수해야 했고, 또 항운노조원보 상문제도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었습니다. 더구나 항만행정은 해양항만청과 부산시, 부산항만공사가 다 관여하는 일여서 현안을 조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만, 그런 일 하라고 나를 보냈으니 어쩔뿐이니까, 풀어내야지요”

‘어려운 일 쉽게 풀어낸다’는 평 들어

그는 취임 이후 한·중·러를 잇는 3각 물류벨트의 기초



노기태 동문

를 다졌고 해외 대형 선사를 직접 찾아가서 부산항 세일즈를 펼쳤다. 부산항은 지난해 사상 최고의 물동량 처리 기록을 세우며 세계 5위의 자리를 지켰다. 그러나 현재의 사정은 그리 녹록하지 않다. 상하이가 싱가포르를 제치고 세계 1위에 오른 데다가 선전, 닝보, 저우산항 등 중국의 성장 속도가 부산항의 경쟁력 강화를 촉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더욱 적극적으로 움직인다.

“올해는 신항 건설에 속도를 내야 합니다. 신항 배후 물류단지, 수리조선단지, 유통공공기지 조성사업을 매듭짓고, 북항재개발 사업의 기반도 단단히 구축할 계획입니다. 항간에는 부산항 재개발사업이 확대를 받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보이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계적으로 추진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부산시 당국에 대한 주문도 감추지 않았다.

“지난해 부산을 방문한 크루즈 관광객이 전년도에 비해 5배나 늘었어요. 크루즈 산업을 황금알을 낳는 거위에 비유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산에는 볼 게 없다는 거예요. 부산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관광자원을 개발해야 합니다”

“용마의 밤은 ‘달라진 동창회’ 과시한 하나의 사건”

- 평소 동창회 활동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는 줄입니다.

“당연히 그래야지요. 우리 본부동창회가 전과는 달리 활기차게 움직이고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용홍 회장이 맡고나서 부터 동창회가 확 달라졌어요. 여러 소모임들, 덕경회와 분부덕경포럼도 결성됐고..지난해 말 있었던 ‘용마의 밤’은 달라진 우리 동창회의 모습을 확실하게 보여준 하나의 사건이었습니다. 전국 동문들이 오랜만에 한 자리에 모여 화합하는 모습을 연출하니 얼마나 보기에 좋았습니까.”

“경발위가 모교발전기금을 조성하고 있는데...”

“우리의 모교가 명문고로서의 과거의 영광을 되찾자는 데 반대할 사람이 있을 리 없습니다. 모두 적극 동참해야 합니다. 모교와 후배들이 잘 되도록 도와주는 것은 결국 선배들 자신을 위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자존심을 되찾는 일이기 때문이지요”

그는 “부산시청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에서 우리 동문 숫자가 생각만큼 많지 않다.”며 안타까워했다. 그러면서 후배들에게는 현실 상황을 그대로 수용하되, 보다 멀리 내다보는 안목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자신의 특성이 무엇인지 잘 살펴서 인성과 자질에 맞는 학과를 선택하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취업 문제도 마찬가지로 예요.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냐가 중요하지 않고, 자신의 적성과 자질에 맞는 직업을 선택하는 게 오히려 성공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해요.”

그의 향후 행보에 정치권 관심 쏠려

‘정치인 노기태’에 대한 기대에서인지 그가 앞으로 보여줄 ‘부산항만공사 사장 이후의 행보’에 중앙과 지역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기자들 사이에서도 ‘차기 부산시장으로 가장 유력한 인물’이라는 평이 나돌고 있다. 그가 지금까지 밝아온 경력을 거론하며 ‘부산시장 빼고는 다 해봤다’, ‘시장 시키면 누구보다 잘 해낼 사람’이라는 말과 함께 시장출마설이 나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노 동문은 손을 내저으며 애써 말을 아꼈다. 그러나 그의 능력과 리더십, 그리고 지금까지 그가 걸어 온 발자취 등을 볼 때 앞으로 쓰임새가 큰 인물인 것은 분명해 보였다.*

성공의 이유는 단순했다
난 항상 그들보다 빨랐다

Master of Acceleration. The new E 63 AMG

메르세데스-벤츠 공식딜러
부산스타자동차(주) 오용승이
늘 고객과 함께하겠습니다

AMG
Performance Center

차장 오용승
H.P : 010.6500.6404
E-mail : ninno64@gmail.com

※경남고등학교 46회

Mercedes-Benz

만나고 싶었습니다... '부부사주 전문가' 정왕주 동문(17회)

“인생의 데꾸보꾸” 겪으면서 공합과 적성 중요성 실감

“아무리 돈이 많고 건강해도 마누라가 없거나 이혼했다면 그 인생은 ‘병든 인생’입니다. 그런 면에서 배우자를 잘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공합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겁니다”

‘부부사주 전문가’란 이색적인 타이틀을 가진 정왕주 동문(17회)은 우리 동문 중에서 몇 안되는 역술가 중 한명이다. 전문분야는 부부사주(공합), 음양오행으로 보는 적성(適性)분석이지만 작명도 한다. 서울 광진구 광장동에 ‘천부적성연구소’라는 이름의 사무실을 열고 주로 인터넷 상담(juksung.com)을 하고 있다.

- 최근 공합에 관한 책을 냈는데?

“작년 10월에 발간한 ‘혼사만사야(婚事萬事也)가 그것입니다. 내가 지금껏 살아오면서 이런저런 ‘인생의 데꾸보꾸’를 겪으면서 내린 결론이 바로 그것입니다. 즉 ‘짜을 바로, 잘 만나야 인생에서 성공한다’는 것입니다”

- ‘인생의 데꾸보꾸’라니, 살아오면서 우여곡절이 많았다는 이야기 같은데...

“우여곡절이 참 많았지요. 내가 공합전문가지만 내 자신이 이혼 경험이 있는 것도 그렇고, 또 내가 여기까지 오면서 밟아온 직업들도 그렇고...”

정 동문은 경남중을 졸업(17회)하고 부산고로 진학했으나 1년만에 ‘때려치우고’ 말았다. 가난 때문이었다. 고향(경남 진양군)에 내려가 ‘빌빌대다가’ 주위의 권유로 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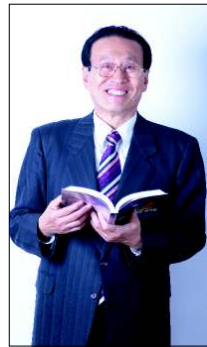
양고에 들어갔다. 진양고 졸업 후 정규대학에 가는 대신 육사를 지원해 입교했으나 겨우 1학년만 다니고는 또 때려치웠다. 군대 문화가 자신에게 맞지 않는다는 결론에서였다. 그러고는 아르바이트를 하며 지내다가 부산대 상과대 경영학과에 들어가 졸업했다.

그의 ‘때려치우기’는 대학졸업 후 직업전선에서도 계속됐다. 대학졸업 후 대한항공에 입사했다가 1년 만에 스스로 ‘때려치우고’ 이어 공구제조회사인 세신실업에 공채로 입사했다가 ‘씻가루가 싫어서’ 6개월만 에 또 때려치웠다. 그후 대한생명(2년), 동기

것이네요.

“그렇게도 볼 수 있겠지만 달리 말하면 무엇보다 그 동안 내가 거쳐 온 직업들이 나의 적성에 맞지 않았던 것이지요”

- 남의 적성은 잘 바꾸면서 자신의 적성은 틀렸다는 이



14군데 직장 전전... 늘그막에 역술가로 변신 성공 역술가는 의사와 같은 직업... ‘인생의 병’ 찾아 알려줘 “적성분석법은 내가 개발한 역술학의 새 분야”

생의 전구공장 상무(2년), 대호유리 상무(1년), 외국브랜드 체육용품 대리점 (3년), 광고회사(1년) 등등 무려 14개의 직장을 거처면서 그 때마다 때려치웠다. 한 직장에서 3년을 넘긴 경우가 드물었다. 그는 “때려치우기가 내 주특기였다”며 웃었다. 그가 역술가로 나선 것은 지난 2006년 부터.

- 그러니까 조직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한

이기가 되겠는데..

“내가 역술가가 되기 전에는 몰랐지요. 늘그막에 사주공부를 해서 음양오행을 바탕으로 적성판단을 해주는 역술가가 된 것도 그동안 살아오면서 경험상 깨달은 바가 크기 때문입니다. 내 적성을 역술적으로 풀어 봤더니 ‘의사’로 나왔습니다. 만약 내가 다시 고교 3학년 그 시절로 되돌아가 대학진학을

한다면 의과대를 택할 겁니다. 의사가 됐다면 아마 명의가 됐을 테지요. 하하하”

- 그렇다면 지금의 역술가라는 직업도 적성에 맞지 않는다는 말인가요?

“아닙니다. 역술가도 따지고 보면 의사와 같은 겁니다. 의사가 환자를 대하듯이 나는 공합보러 오는 사람이나 적성을 보러오는 손님들에게 상담을 통해 ‘인생의 병’을 찾아서 지적해줍니다. 풀어서 알아듣도록 답을 주는 것인데, 병을 고치고 안고치는 건 그 사람의 몫이지요”

- 역술가가 된 계기는?

“육담광고회사를 차려 그대로 먹고살 만해지니까 내가 살아온 과정을 되돌아보고 스스로 반성하게 됐지요. 우연히 주역과 사주명리학에 빠져 공부하게 되면서 음양오행의 심오한 사상에 자연의 이치를 깨달았고 거기에서 개개인의 적성을 찾아내는 이치를 이론화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내가 개발한 ‘천부적인 적성분석법’입니다”

- 역술로 돈은 많이 벌고 있습니까?

“그런대로 먹고 살만큼 충분히 벌고 있습니다”

- 이혼경험이 있다고 했는데, 처음부터 공합이 잘못된 겁니까.

“그런 건 아니고...아내와는 오래 전, 그러니까 88년도에 이혼했다가... 실은 한달 전인 작년 12월에 다시 재결합했습니다. 이혼한지 23년 만에. 하하하”

- 역술가로서 신묘 새해에 동문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모든 미래는 자신 속에 다 들어있다. 그것을 알기위해 스스로 노력해서 진로를 찾아야 한다”는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

/秃筆雜記/

할아버지 노릇하기

인터넷신문의 제목을 훑어보는데 요즘 젊은 엄마들이 자녀들의 장래를 위해 취학 전부터 ‘커리어 코칭’(Career Coaching · 경력 지도)이란 걸 하고 있다는 기사가 눈에 들어온다. 허, 이게 무슨 소린가 싶어서 눈을 크게 뜨고 읽어보니 어려서부터 체계적인 관리로 아이들 스타를 키워내는 연예 매니지먼트와 유사한 개념으로 어린 애들의 스펙을 쌓아주고 있다는 얘기가.

기사에 소개된 바에 따르면 치료의사인 한 부모는 2

살짜리 늦둥이 아들을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전문컨설팅업체에 연회비 100만원씩 내고 ‘커리어 코칭’이란 걸 통해 아들을 어느 영어유치원에 보내야 하는지, 교재 활용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등을 상의하고 있다는 것이다. 겨우 2살짜리에게? 이런 해도 해도 너무 한다는 생각이 앞선다.

한국의 이런 조기교육바람은 말하자면 ‘돈 놓고 돈먹기’ 식의 제로섬 게임이라고 할 수 있다. 자녀들에게 일찌감치 돈을 쏟아 부어 조기교육을 시키고 스펙을 쌓게 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무한경쟁구도에서 오직 내 자신만 살아남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러니 “옛날처럼 개천에서 용 나기는 애초 틀려먹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다.

그런데 정작 문제는 지나친 자녀조기교육열로 손자

손녀를 둔 할아버지들이 엉뚱한 수난(?)을 당하는 데 있다. 최근 어느 양반이 전화를 걸어와 대뜸 “손자 손녀의 ‘생신’을 잘 챙겨드려야 합니다”라고 웃으며 말하는 게 아닌가. 손자 손녀생일에 최소한 케이크라도 보내든지 용돈이라도 쥐야 할아버지 대접을 받지 만약 그러질 못하면 머느리는 물론이고 손자 손녀에게서 미움을 받고 따돌림까지 당한다는 이야기다.

그러면서 그는 “요즘 무슨 놈의 입학식이 그리 많은지, 손자 손녀가 다니는 피아노학원, 붓글씨학원, 한문학원, 태권도도장 등등의 입학식 행사들을 뒤따라 다니며 챙겨주느라고 정신이 없을 지경”이라고 불평을 늘어냈다. 하기사, 이제는 돈 없는 할아버지 노릇하기도 쉽지가 않은 세상이다. * (바우)



전망이 좋은 횡집

용마 횡집

“깨끗해서 좋고 맛이 있어 좋습니다.”

동문 여러분을 친절하고 저렴하게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대표 오용환 (31회)

부산시 수영구 민락동 110-48 바다산책빌딩 2층
미월드 놀이동산 앞 수변공원에 위치

☎ 051-759-7337
011-574-5030



恩師列傳 ③ ‘스핑크스’ 손동인 선생님

열정적 수업으로 문학에 눈뜨게 해 준 ‘인생의 스승’



김중하 동문(11회, 전 부산대 교수)

동화작가며 시인인 ‘스핑크스’, 그 열정적 수업

손동인 선생님! 얼마나 정겨운 이름인가!

그런데 선생님 성함만으로는 그 이미지가 제대로 잡히지 않는다. 역시 별명 ‘스핑크스’라야 선생님의 베토벤의 울백을 담은 그 풍성한 머릿결과 그 큰 두상이 대번에 떠오른다. 그렇다면 ‘베토벤’이란 별명이 붙을 법한데, 어떻게 ‘스핑크스’가 되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다만 9회 문예반 선배였던 서립환-당시 본명은 서성수였는데 시인이 되면서 립환으로 개명을 해 버렸다-과 미술반에도 속해 있었던 이윤희가 더 멋스럽다고, 선생님은 노래는 쟁쟁이라고 불렀던 별명이란 설이 하나 있다. 다른 하나는 그때 문법을 가르쳐 주시던 김계곤 선생님이 어느 사석에서 “시인 국어선생이 온다가에 호기심에 차 기대했더니 스텝크스 머리를 한 한 촌사람이 와 놀랐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러면 김계곤 선생님이 붙여 준 별명이 되는 셈이다. 여하튼 선생님은 이 ‘스핑크스’란 경고 재직 때 얻은 별명이 마음에 들었던지 그 후 문단활동 등에서 자신의 호를 ‘수평구(秀平丘)’로 사용한 것으로 안다.

선생님의 수업은 “예-예”로 시작된다. 그것도 한 옥타브 높은 고성으로. 한 쪽 바지 포켓에 손을 넣고 교단을 어슬렁거리며, 지금 생각하면 시를 분석해 이해시키려 하거나, 소설의 주제가 어떻고 구성이 어떻게 하는 식으로는 가르치지 않았다. 시는 통째로 외워 삼키게 했다. 선생님이 눈을 지그시 감고 감정을 잡아 외면 우리도 그냥 멍하니 듣는 것으로 충분히 이해가 된 듯 했고, 병풍 장날의 풍경과 허 생원의 애투한 사랑도 가슴 따뜻하게 알 수 있었다.

수업 내용에서도 시인이나 소설가의 사립품을 가르치는 데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었고, 특히 부산 출신의 시인이나 소설가에 애착이 많아서 이분들의 시집이나 소설집을 권했다. 그때 우리는 이미 김정환, 이주홍, 오영수, 유지환, 이상순, 안장현 등등의 문인들을 알았다.

문학 수업은 그렇게 하면 그만이었지만 오히려 한자숙어는 참 꼼꼼히도 내력까지 가르쳐 주셨다. 어쩌면 그것이 우리의 상상적 공간을 더 넓혀 준 것일지도 모르겠다. 한단지몽(邯鄲之夢), 한단지보(邯鄲之步)나 백시(白冢), 죽견폐일(蜀犬吠日) 등의 고사숙어를 엄청 배우면서 그 때에는 참 별

나다 했었는데, 요즘에선 선생님의 깊은 뜻을 알만해졌다. 선생님은 성우 고은정의 목소리에 반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여자”라고 하는 로맨티스트였지만, 때로는 양귀비도 뒷간에서 똥을 퍼질러 놓는다거나, 클레오파트라의 압내를 닮는 반페미니스트적인 이중성도 보여주셨다. 선생님의 이런 이중성은 여성을 사랑하는 지극한 마음이 제대로 가 닿지 않는 여성이 있었기 때문이었음을 당시 선생님 나이쯤 되어야 이해가 되었다.

시문 동인지에 소설 게재... 소설에 더 역점 둔 듯

선생님 연배 세 분이 만든 동인지가 <詩門>이었다. 그런데 선생님도 그때 <병아리 삼형제>라는 동화책을 출판한 동화 작가이면서 시인이었는데 어쩌자고 시 동인지에 꾸역꾸역 소설을 실었는지 모르겠다. 동인 세 분은 손동인, 안장현, 김태홍. 두 시인은 결국 손 선생님 고집을 꺾어내지 못해 그랬겠지만, 이때 이미 선생님은 소설을 쓰겠다는 결심을 한 듯하다.

그건 필자가 대학에 입학했던 1957년 여름의 일로 입증되었다. 여름 방학 때 선생님은 느닷없이 제주도 한라산 등정을 제안했다. 등산은 구덕산 밖에 모를 때였는데, 까짓하는 허세도 있었고, 또 내겐 군장비인 배낭과 비옷이 있어 자신했는지도 모르겠다. 동행으로는 10회 선배 정상진과 ‘연원’이란 잡지 사장의 아들이라는 고등학교생과 넷.



故 손동인선사의 젊었을 때 모습

명성춘호 목선을 타고 제주항에 도착했을 때 이미 태풍 베라호가 오고 있었지만 알 턱이 없는 우리는 돼지가 꼴꼴대는 뒷간이 딸린 여관에서 퐁퐁지 맛을 찻찻거리며 내일 등산을 계획했다. 초행이라 길 안내를 받기로 하고 등산을 한 이틀만 1미터 앞도 볼 수 없는 관음사 계곡에서 야영을 했다. 개미목만 올라서면 바로 백록담이란 기대를 버리지 못한 선생님은 강행을 하자고 했고, 필자는 목숨이 달린 투기는 무모하다고 맞서 결국 등정은 초기 실패. 이것이 몹시 야속했던지 선생님은 <산정부근>이란 소설에서 안개 속으로 혼자 등정에 나서는 것으로 결말지었다.

제자 문학인들 많이 길러 내

문예반은 오후 수업이 끝나면 요일 지정도 없이 특활교실에 모여 들었고, 시작(詩作)이나 잡문 꺾적거리, 잡담으로 시간을 죽였다. 가을이면 시화전 준비에 바쁘고 신명을 냈고, 옆방인 미술반에서는 누가 누구의 시에 그림을 그려 주는가

를 정하느라 시끄러웠다. 이 행사에 시를 한 편 내걸지 못하면 문예반원으로서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시화전은 당시 부산에서 제일 컷던 미화당백화점 전시관이나 미 공보원 전시관에서 하게 되고, 이 전시회에는 시내 여학교 학생들이 엄청 보러 왔을 뿐만 아니라, 그 시화 및 책상에 소위 ‘사인북’이라는 소감을 적는 노트까지 놓아두는 탓에 시화전의 인기는 대단했다.

선생님은 당시 설창수가 주관했던 진주의 개천예술제에 우리 문예반원들을 특별히 보내 주셨고, 전국의 문학도들을 만나고 교류하는 기회도 만들어 주었다. 이런 분위기 덕에 경남고에서 시인들이 많이 배출되지 않았나 싶다. 서립환(9회), 장승재(12회), 이우경(12회), 안철환(13회), 정행권(9회), 허원구(9회), 이원우(10회) 이봉원(10회), 소설가 이복구(14회), 천금성(14회) 등등. 뿐만 아니라 당시 철학과나 국문과로 진학한 문예반원이 많았던 것도 선생님의 영향이 아니었을까 한다.

선생님의 그림자를 따르며

선생님은 4·19 후 경고의 교원노조의 책임을 맡았던 것이 화근이 되어 5·16 이후 학교에서 쫓겨 났다. 후구지책으로 경고의 시간강사로 <작문> 수업을 맡아 하다가 서울 보성고로 올라간 뒤에 인천교대 교수로 옮겨 정년하신 것으로 안다.

그런데 필자가 경고 교단에 서게 된 연인이 참으로 묘하게도 선생님의 뒷자리였다. 선생님이 보성고로 갑자기 올라가게 되면서, 마침 군에서 제대를 하고 집에서 쉬고 있는 내게 작문 수업을 해 보라고 권했다. 그게 여름 방학 때라 심심한 김에 내내 봄까지만 해 볼까 하고 시작한 것이 결국 경고에서 횡수로 8년 봉직하고 대학으로 교직을 옮기는 계기가 되었다.

경고에서는 경고학보에 투고했던 원고가 실리면서 문예반원이 되었고, 학원이란 잡지에 투고하는 문학도가 되었으며, 대학도 국문과로 갔고, 평생 국어 선생을 하게 된 게 다 선생님의 그림자를 따른 셈이 된다.

어릴 때 기계 나무맹이를 들고 고치고 하는 걸 보신 할아버지가 “넌 기술자가 되겠구나” 하셨고, 또 또한 그러하리라 생각했는데 손동인 선생님을 만나고는 180도 진로가 바뀌었다. 그러나 어릴 적 그 기질이 있어서 그런지 창작은 영 나아지지를 않아 비평을 하게 되었다 보다. 지금도 적성 검사를 해보면 자연·이공계로 나와 대학 동료 교육과 교수가 놀란 적이 있었다. 물론 이제 그걸 후회한다거나 안타까워하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을 제대로 따르지 못했음을 부끄러워하고 더 열심히 하지 못했음을 스스로 책망할 따름이다.*

또 다시 우리끼리 하는 이야기지만...

경남중고 동창회보는 동문 여러분이 내시는 구독료(올해부터 년 3만원)로 제작돼 일일이 개별발송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독료를 내주시는 동문은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광고수입으로 제작비와 발송비 등 제 경비를 충당할 수도 없습니다.

회보에 자진해서 광고를 내주시는 동문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회보제작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솔직히 우리끼리 하는 이야기지만 힘이 듭니다.

구독료 납부를 당부드립니다.

◇ 구독료 납부계좌 : <부산은행>028-01-032909-1 경남중고동창회 이용흥 *동창회보와 함께 보내드리는 지로용지로 납부하셔도 됩니다.
◇ 광고 연락 : 회보편집실 (051)245-7551~3 / 팩스 (051) 245-7550

지도교사 없이 고군분투... 경고미술반 시절

그 때 그 시절 이야기

반미대 동문(14회 · 진축가)



경남고에 입학하자마자 나는 곧 3학년 선배들로부터 일약 주목을 받는 인물이 되어 있었다. 어느 날 나에게 3학년 몇 반 교실로 출두하라(?)는 엄명이 내려졌다. 무슨 일인가 하며 미리 주눅이 든 채로 원형교사 구름다리를 건너 3학년 교실에 들어서니 온 시선이 나에게 쫓긴다. 그러고는 뉘답이 시작됐다.

“너 누나 있지?”
“예.”
“경남여고 3학년이라 했나?”
“예.”

“그럼 너 누나 나한테 소개 좀 시켜라.”
마치 청문회장 같은 분위기는 수업시작을 알리는 벨 소리가 울리고 나서야 겨우 막을 내리곤 하였다. 이런 일이 몇 번이나 되풀이 됐다.

당시 우리 집은 충무동 토터리 부근에 있었는데, 인디고블루의 상의에 쪽색 바지의 경남고 하복차림을 한 내가 하얀 블라우스에 새까만 끈 타이틀 맨 경남여고 유니폼을 입은 누나와 함께 등교하기 위해 집을 나서면 충무동 골목시장 어귀의 뚝 아주머니들 시선이 우리 남매에게로 집중되곤 하였다. 아마도 누나와 함께 등교하는 걸 본 어느 선배가 학교에다 소문을 내는 바람에 나에게 청문회장으로 오라는 소환장이 발부된 게 아닌가 싶다. ‘100미터 미인’을 누나로 둔 죄였다.

여름방학을 보내고 10월 들면 동복(冬服)을 입는다. 그 때는 가난했던 시절이어서 누구나 교복을 장만할 때 금방 몸이 자라는 것을 감안해서 오래오래 입을려고 소매와 바짓단도 안으로 접어 넣어야 할 만큼 넉넉한 품으로 골랐다. 입학할 때는 맨 뒤에 서야 했던 꼬마가 여름방학을 지나자 앞줄에 끼어들 정도로 키가 쑥 커버렸다. 상의는 그대로 견뎌낼 수 있었으나 바지 가랑이의 폭이 말썽이었다. 바지길이는 접어 넣었던 바짓단을 꺼내려면 됐으나 바지 가랑이의 폭이 좁아져 복장감사에서 지적 사항 가운데 하나인 ‘맘보바지’가 되고 말았다.

사단은 매주 월요일 아침, 전교생이 운동장에 도열하는 조례시간에 발생했다. 훈육주임을 겸한 주상우 선생님께서 내 바지가 맘보바지로 지적돼 불려나가 뉘다란 계단 위에 한 시간 동안이나 패션모델처럼 서 있어야 했다. 아, 지금 생각해도 그 때만큼 억울했던 적이 없다.

하기사 당시 맘보바지가 우리들 사이에 유행이었다. 거기다가 뺨은 크면서 창은 짧은 모자에 똥구두를 질질 끌며 천막 조각으로 오려 만든 만년가방에 김칫국물이 배시시 배어나와 ‘경고인’의 하나로 끼어들 수 있었다. 책가방도 일부러 손잡이를 떼어내고 마치 기출하는 사골 가시나가 낀 보통이처럼 열구리에 끼고 다녀야 공부벌레로 숭앙받을 수 있었다. 그 뿐인가. 동복 상의



경고미술반 시절 때 교정에서. 왼쪽이 필자, 오른쪽은 조광웅 동기.

들은 머리를 맞대고 별난 궁리 하나를 짜내었는데, 그게 곧 이웃의 부산여고 미술선생님을 찾아가 자문을 받아 보자는 것이었다. 며칠 후 우리들은 그간 정성껏 다듬은 데생 작품 가운데 제법 그럴 듯한 몇 점을 챙겨서는 부산여고로 향했다. 정문에 도착하여 수위아저씨에게 우리들의 방문 사유를 말하고 떨리는 가슴으로 교정에 들어섰다. 그 순간, 수업 중이던 교실마다의 창문이 일제히 열리면서 ‘와!’ 하는 여학생들의 함성이 교정에 울려 퍼지는 게 아닌가. 몸 풀 바를 모를 지경으로 당황했으나 그렇다고 그대로 물러설 수도 없는 일. 흥당무가 된 얼굴로 무작정 교무실로 뛰어 들어가니 이번에는 경악한 선생님들의 뚫 시선이 우리에게 쫓리고 있지 않은가.

“이놈들이 누구야?”

서 우리는 엉거주춤한 채로, 더듬거리며 저간의 사정을 말씀 드렸다. 그런데 가는 날이 장날이라더니, 하필이면 미술담당 선생님이 그 날 따라 걸근이셨으니! 그것으로 끝이었다. 만년을 무릅쓴 우리들의 역사적인 부산여고 방문이 무위로 돌아가자 우리들은 그만 두 번 다시 용기를 낼 엄두조차 낼 수 없었던 것이다.

드디어 서울대 미술대학에 응시원서를 내고 실기시험을 치르던 날, 타고생들은 선배로 보이는 재학생들이 저마다 후배들을 대상으로 갖가지 격려와 응원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더욱 기가 죽을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나를 제외한 두 미술가 지망생은 당당히 합격의 영광을 안아 자랑스럽게 서울대 배지를 달았고 낙방한 나는 낙향하여 지방대학의 건축공학과로 방향을 틀 수 밖에 없었다.

지난해 졸업 50주년을 맞아 홈커밍데이 행사를 치르면서 나와 마찬가지로 백발이 된 고회의 두 미술학도와 반갑게 만났다. 그 치나긴 세월 동안, 곱슬머리 조광웅군은 설기미술의 대가로 발돋움해 있었고, 말수가 적은 고수길군은 대학교수로 강단에서 후진을 양성하는 의미 깊은 삶을 살아온 것이었다. 돌이켜 보면 새삼 그 시절이 가슴 저미도록 그리다.*

‘100미터 미인누나’ 둔 죄로 청문회에 불려가 ‘맘보바지’ 입었다며 전교생 앞에서 모델처럼 벌 받아 미술실에서 자율학습으로 석고대상 연습 평가받는다며 작품 들고 부산여고로 쳐들어갔다...

의 반질거리는 노랑 빛깔의 새 단추도 배경의 대상이었다. 촛불에 그슬러 깨무쭈쭈해 야 제멋이었고, 모자 인창은 뜯어낸 다음 공연히 시멘트 바닥에 박박 문질러 실밥 자국을 남겨야 만인이 우러러보는 ‘참 경고인’이라 칭했던 것이다!

나는 초등학교 시절부터 그림 그리기와 공작 등에 관심이 많았다. 그 덕에 경남중 때는 6·25 및 반공주간, 불소심주간, 청소년 등 각종 포스터제작 경시대회에서 최고상을 여러 차례 받았다. 경남고에 진학해 3학년이 되면서 대학진학을 앞두고 학과성적이 변변치 못한 처지인지라 걱정이 많았다. 그래서 일단 입시에서 실기에 큰 비중을 두는 서울대 미술대학 회화과를 목표로 정하고는 오전의 문과반 수업을 마치자마자 공장 미술실로 달려가 석고 데생 등을 공부하곤 하였다. 그 때 함께 호흡을 맞춘 학우가 나중에 미술 분야에 큰 족적을 남긴 조광웅군과 고수길군 두 학우다.

그런데 당시 경남고에는 체육을 비롯한 음악이나 서예 등의 분야에는 담당 선생님이 계셨으나 유독 미술 분야에만 선생님이 빠져 있었다. 따라서 학교수업과목에서 아예 미술시간은 편성조차 돼 있지 않아 우리 미술학도들의 향학열을 달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그러저럭 자율학습으로 데생의 초보단계를 극복했으나 지도교사는 여전히 부재중이어서 우리들의 작품에 대한 지도와 비평을 받아내는 일이 불가능했다. 그래서 우리

어느 선생님이 소리부터 내질렀다. 그래

시 산책

아지매는 할매되고

허 홍 구

염매시장 단골술집에서
입담 좋은 선배와 술을 마실 때였다

막걸리 한 주전자 더 시키면 안주 떨어지고
안주 하나 더 시키면 술 떨어지고
이것저것 다 시키다보면 돈 떨어질 테고
그래서 얼굴이 곰보인 주모에게 선배가 수작을 부린다
“아지매, 아지매 서비스 안주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주모가 뭐 그냥 주모가 되었겠는가
묵 한 사발하고 김치 깎두기를 놓으면서 하는 말
“안주 안 주고 잡아먹히는 게 더 낫지만
나 같은 사람을 잡아 먹을라카는 그게 고마워서
오늘 술값은 안 받아도 좋다”하고 얼굴을 붉혔다

십수 년이 지난 후 다시 그 집을 찾았다
아줌마 집은 할매집으로 바뀌었고
우린 그때의 농담을 다시 늘어놓았다
아지매는 할매 되어 안타깝다는 듯이
“지랄한다 목을라하면 진작 목지”

허홍구 시인 = 대구출신, 국제 PEN 클럽, 한국문인협회, 한국시인협회 회원, 시집(사랑 나에 지우 하나) (네 눈으로 나를 본다)(네 니 마음 다 안다) (사람에 위하여) 등, 수필집 <눈을 아니 잡아도 팔이 저려옵니다>

<http://www.winsteel.co.kr>

21C 하이테크 세상 — 그 중심에 윈스틸이 있습니다.

당사는 POSCO STEEL CENTER 로서 첨단 기술력과 장인정신으로
철강재 생산 및 유통의 새 장을 열어갑니다.
고객에겐 좋은 제품 좋은 서비스로 사회엔 좋은 기업 좋은 직장으로 묵묵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POSCO 열연·냉연 강판가공 / 데크플레이트 생산



 **주식회사 윈스틸** 회장 송규정 (16회)

본사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천동 858-41 (051)644-0121

서울지사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505-14 (02)854-2818
경인지사 :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2210 (031)8041-8900
사상영업소 : 부산광역시 사상구 감전동 166-9 (051)313-5481

포항공장 : 경북 포항시 남구 장흥동 1853 (054)278-6691
예산공장 : 충남 예산군 삼교읍 두리 121-8 (041)338-0048
음성공장 : 충북 음성군 삼성면 상곡리 752 (043)883-0048